

#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협상 결렬... 법정공방 불가피

공항측 2차 임대료조정기일 불참  
인천지법, 강제조정안 마련 계획  
조정안 이의 제기 땀 소송 가능성  
‘면세 안방’ 해외자본 유입 위기

인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들과 인천 공항공사와의 임대료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관광객 증가에도 업황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조정에도 실패하며 양측의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K-면세의 안방인 인천공항 면세점 자리가 해외 자본에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1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면세점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6% 감소한 9199억4652만 원이다. 구매 인원은 258만339명으로 9.2% 늘어난 반면 1인당 면세 구매액은 35만6000원으로 16.4%나 줄어 들었다. 여객 수로 임대료를 환산하는 상황에서 1인당 구매액이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면세점들은 매달 50억~1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 고객 비중이 큰 중국 소비 시장이 크게 침체했고, 고환율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고객의 매출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만큼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공항과의 임대료 협상도 결렬되며 갈등은 점점 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임대료 조정기일에 인천공항 측이 불참하며 신라·신세계면세점과 조정이 결렬됐다. 인천공항 측은 두 면세점 임대료를 깎을 경우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면세점들은 지난 4월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 악화를 이유로 임대료를 40%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2차 조정 기일 전날 30~35%로 요구액을 낮췄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정이 결렬되면서 인천지법은 강제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조정안에 강제성은 없어 이행할 의무는 없다. 인천공항이 조정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간다. 인천공항이 태도를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업계에선 면세점 임대료 갈등이 소송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면세점 관계자는 “모든 상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임대료 갈등이 장기화 할 경우 국내 면세 사업자인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철수하고 그 자리를 중국 등 해외 자본이 차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항 면세점 입점은 상징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내 업체가 철수할 경우 장기적으로 해외 사업자가 유입할 확률이 높다”고 진단했다.

인천공항의 강경한 태도는 업황이 악화하자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해외 주요 공항 움직임과 대조된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입찰로 선정된 면세점



예보한도 상향 첫날 은행 찾은 권대영 부위원장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첫 날인 1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예금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 美 관세에도 8월 수출 역대 최대

반도체·자동차·선박이 견인  
對美수출 줄고 아세안 증가세

우리 수출이 3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갔다. 8월 수출액은 반도체·자동차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1.3% 늘어난 584억 달러로,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미국의 고율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은 12% 급감하며 뚜렷한 타격을 받았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입은 4% 줄어든 519억 달러, 무역수지는 6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6월 이후 3개월 연속 역대 월간 기준 최대 수출 실적이 이어졌고, 무역흑자 역시 7개월째 지속됐다.

8월 수출 증가세는 반도체·자동차·선박 등 3개 품목이 이끌었다.

반도체는 151억 달러(27.1% ↑)로 사상 최대 수출액을 두 달 만에 다시 경신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이 호재로 작용했고, DDR4 가격은 전년 대비 178%, DDR5는 16.7% 올랐다.

자동차는 순수 전기차(68.5% ↑)와 하이브리드차(13.3% ↑)가 모두 플러스 흐름을 보였고, 중고차 수출도 37% 늘면서 55억 달러로 8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내연기관차는 1.6% 감소했으나 친환경차가 이를 만회했다.

선박 수출은 고선가 수주 물량 인도가 이어지며 31억 달러(11.8% ↑)를 기록, 6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외에도 농수산물, 화장품, 전자기기 수출이 8월 기준 최대 실적을 냈다.

반면 석유제품(△4.7%), 석유화학(△18.7%), 철강(4개월 연속 감소)을 비롯해 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컴퓨터·바이오헬스 등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9대 주요 시장 중 아세안·CIS·중동 3곳에서 플러스를 기록했다.

아세안은 반도체·선박 호조에 힘입어 109억 달러로 8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CIS(9.2% ↑), 중동(1% ↑)도 증가세로 전환했다.

반면, 대미 수출은 자동차·철강 등 주력 품목이 줄며 87억 달러(12% ↓)로 폭 떨어졌다. 이는 2024년 2월 이후 처음으로 100억 달러 아래로 내려온 수치다. 반도체·항공유 등 관세 예외 품목은 선방했으나 전체 감소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대중국 수출은 일반기계·통신기기 부진으로 2.9% 감소했지만, 반도체(10.9% ↑) 선전 덕에 전체는 110억 달러로 보험 수준을 유지했다.

EU는 자동차(78.9% ↑)와 선박(2.9% ↑)은 늘었지만 기계·석유화학·바이오헬스 부진으로 전체 수출이 줄었고, 일본 역시 석유제품·철강 감소로 5.2% 하락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메모리 패권 노린 엔비디아, 핵심부품 손댄다

HBM 베이스다이 자체생산 추진  
SK하이닉스 견제 조치 해석도

엔비디아가 고대역폭메모리(HBM) 핵심 부품을 직접 설계하는 등 인공지능(AI) 인프라 산업 권력 재편에 나서고 있다. 7세대 HBM인 HBM4E부터 엔비디아의 자체 설계 베이스 다이가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되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HBM 베이스다이의 자체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베이스다이는 AI 반도체에 필수로 쓰이는 HBM의 핵심 부품이다. 현재 GPU와 AI가속기 패키징을 대만

TSMC에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HBM 핵심 부품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엔비디아는 오는 2026년 말까지 베이스다이 개발을 완료한 뒤 2027년 상반기에 TSMC의 12nm(나노미터)공정에서 SK하이닉스가 공급하는 표준 HBM4E를 먼저 채택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맞춤형 HBM4E 설계로 전환해 TSMC 3nm 공정 노드에서 대량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TSMC 파운드리 공정을 통해 베이스다이를 생산해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는 만큼 이번 행보를 두고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를 견제하려는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SK하이닉스는 2024년 물량 완관을 선언하며 HBM 시장을 장악했다. 그러나 올해는 마이크론이 2025년 물량을 먼저 완관했다는 소식을 발표하며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와의 협상에서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라는 시각이 따른다.

엔비디아의 공급망 다변화 과정에서 삼성전자도 주요 후보로 거론된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아직 HBM을 납품하지 못하지만 올해 내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고 공급을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4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



▲대통령실, 정부에 ‘추석 전 농수산물 물가관리’ 지시  
▲우 의장 “국회, 국민 삶 지키는 민주주의로 가야... 개헌특위 10월 구성”

/사진 뉴스

▲김용범 “李, 한미정상회담 못 해도 되니 관세협상 무리한 사인은 안 된다고 해”  
▲인사청문회 하루 앞두고도... 최교진 의혹 현재 진행중

▲민주당 전북도당, 홍보소통국장에 최광호 전 전주시 비서실장 임명  
▲합참의장에 공군 출신 진영승... 군 4성 장군 모두 교체



# “소비자 불안 자극하는 보험사 과장광고 통제 강화할 것”

## 취임 3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업권별 CEO 릴레이 상견례

보험회사 간담회서 관행 정조준

“GA 불건전 영업, 경영진에 책임”

8일 증권·자산운용업계 간담회

취임 3주 차에 접어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업권별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릴레이 상견례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8일 은행을 시작으로 보험, 저축은행, 증권·자산운용, 카드, 상호금융 순으로 업권을 차례로 만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기조를 업계 전반에 내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전임 이복현 원장이 취임 직후 적극적인 백브리핑과 현안 발언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것과 달리, 이 원장은 원고에 맞춘 모두발언과 비공개 대화 중심의 행보를 통해 감독 메시지를 축적해 나가고 있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보험회사CEO 간담회’에서 과도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보험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고와 불안전판매,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같은 고질적 문제를 정조준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의 불안을 자극하는 과장 광고와 과도한 사법비 지출이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광고 기획 단계부터 사전 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동시에 고액 정착지원금

이 오가는 설계사 스카우트와 GA(법인보험대리점) 불건전 영업 관행에 대해 “적발 시 경영진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재무건전성 규제와 관련해서는 “금리 하락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업계 우려를 감안해 K-ICS(보험금지급여력) 기본

자본 규제 도입에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삼성생명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 문제 등 일부 쟁점은 원칙에 맞게 정리하겠다는 태도로 남겨두며 신중함을 유지했다.

앞선 은행업권 CEO 간담회에서는 이미 ‘이자 장사’ 지적을 통해 생산적 금융과 소비자 보호를 주문했고, 현안 질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준비된 발언만 내놓는 듯 보였지만, 비공개 회의에서는 예상보다 긴 시간을 들여 은행장들의 건의를 경청하며 위험가중치 규제나 자본 규제 같은 세부 현안을 청취했다.

업권별 간담회가 이어질수록 준비된 메시지는 구체성을 더하고, 각 업권 현안과 맞물리며 감독 기조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제 관심은 오는 8일 예정된 증권·자산운용업계 간담회로 쏠린다. 업계 최대 관심사는 종합투자계좌(IMA) 지정과 발행어음 인가 심사, 그리고 책무 구조도 정착 여부다. 금융당국은 자기

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를 대상으로 IMA 지정 심사를, 4조원 이상 증권사에는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모험자본 공급 기능 강화를 위해 제도 손질이 예고돼 있는 만큼, 이 원장이 어떤 수준의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책무구조도 역시 현 정부의 지배구조 강화 기조와 맞물려 점검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은행·보험권에서와 같이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결론보다는, 원칙과 방향을 먼저 각인시키고 세부 내용은 추후 후속 브리핑으로 풀어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원장이 모든 업권 간담회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기조는 금융소비자 보호다. 은행권에선 ‘이자 장사’를 비판했고, 보험사에는 ‘과도한 광고’와 ‘판매 관행’을 정조준했다. 추후 업권별 간담회에서도 초반부터 강하게 경고를 주되, 구체적인 제재나 인허가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공공기관 중대재해 발생하면 기관장 해임

### 구윤철 부총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경영 위해 기관장 책임 법제화”

향후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기업·기타공공기관 등의 기관장은 직위해제 위치에 처할 전망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근로자 안전 없이는 경

영성과도 의미가 없다”며 “안전 경영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기관장 책임을 법제화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기관장은 해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산업현장 안전확보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산재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근절하

기 위해 경영평가 중 산재예방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안전관리등급심사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사망사고 감소에 대한 배점을 상향해 산재사고가 안전관리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 1회 공시하던 산재사망자 수를 분기별로 추가 공시하고, 중대재해 부상자 수 공시도 신설해 안전관리 상황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관리등급심사 대상기관

104개 전부에 대해서는 위험작업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최근 3년간 사망 사고가 발생한 24개 기관은 연내 점검·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능형 CCTV, 드론, 인공지능(AI)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 위험은 낮추고 효율성은 높이는 한편 공공기관 안전투자에 대한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공운위 위원들은 이날 35개 주요 공공기관의 향후 5년간 경영목표, 투자방향, 연도별 자산·부채규모 등 재무전망을 담은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박서진

전유진

**제19회** THE 19th GYEONGGI-DO PARA SPORTS FOR ALL FESTIVAL 2025 PAJU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2025 파주**

9.12.(금) ~ 9.13.(토) **개회식 9.12.(금) 10:30 | 파주스타디움**

**제36회** THE 36th GYEONGGI-DO SPORTS FOR ALL FESTIVAL 2025 PAJU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2025 파주**

9.26.(금) ~ 9.28.(일) **개회식 9.26.(금) 17:00 | 임진각 평화누리**

※문산역에서 행사장까지 무료셔틀버스 수시운행

김연자

윤하

나태주



# 윤여원, 이승화 이사 선임안 반대

〈콜마비엔에이치 대표〉

## “무리한 이사회 진입, 심각한 위협”

###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

윤 대표, 회사·주주 가치 훼손 강조  
콜마비엔에이치 임시주총 소집 부결  
“오너가 갈등, 이사회 의결 영향”

오는 26일까지 열릴 것으로 예정된 콜마비엔에이치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윤여원 콜마비엔에이치 대표가 경영권 방어에 적극 나섰다.

이번 콜마비엔에이치 임시 주총은 윤여원 대표의 오빠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의 요구로 개최되는 것으로 윤 대표와 윤 부회장은 각각 ‘독립 경영’과 ‘경영 쇄신’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1일 콜마그룹에 따르면, 윤여원 대표는 지난 8월 29일 콜마홀딩스에 ‘이승화 전(前)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엔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반대하는 공식 공문을 제출했다.

윤여원 대표는 이 공문을 통해 “이승화 후보자는 과거 CJ제일제당 재직 당시 해외 자회사 바타비아의 경영 부실과 관련하여 인수 시작 및 이후 운영 등 전반적인 경영실태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서면경고를 받은 뒤 퇴직한 이력이 확인됐다”며 “이와 같은 경력은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자격과 적격



윤여원  
콜마비엔에이치 대표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승화 전(前) CJ제일제당 부사장은 2021년 CJ제일제당이 인수한 바타비아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 손실을 발생시켜 CJ그룹 수익성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승화 전(前) CJ제일제당 부사장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직접 추천한 인사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은 콜마그룹 핵심 경영진으로서 지난 4월부터 그룹 내 계열사 콜마비엔에이치에 경영체계 재정비를 요구해 왔다. 특히 윤상현 부회장 본인과 이승화 전(前)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엔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공문 제출은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엔에이치 개인 주주로서 입장을 표명한 것이기도 하다. 윤 대표는 “무리한 이사 선임은 회

사와 일반 주주의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콜마홀딩스 측은 ‘이승화 전(前)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자질 논란에 대해 모든 대응은 법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개최된 콜마비엔에이치 이사회에서는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주주 제안으로 상정한 ‘콜마비엔에이치 임시 주주총회 소집 안건’이 부결됐다. 윤동한 회장은 사내·사외이사 5인 선임의 건을 올릴 계획이었으나 무산된 것이다. 또 콜마비엔에이치 이사회에서 안건이 부결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콜마비엔에이치 관계자는 “출석 이사 6명 중 3명이 찬성하고 3명이 기권한 결과”라며 “경영권 분쟁이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도 본격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사회가 윤동한·윤여원 부녀측과 윤상현 부회장 측으로 나뉘는 등 창업주 일가의 경영권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향후 이승화 전(前) CJ제일제당 부사장 등의 이사회 진입은 경영 안정성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관계자는 “콜마비엔에이치는 특정 세력의 이해가 아닌 모든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장보기 무섭다”… 먹거리 소비 9년만에 최저

2분기 월평균 소비지출 42만3000원  
물가 상승분 제외 소비지출 34만원

먹거리 소비가 2016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까지 위축됐다. 외식·가공식품 등의 소비지출이 크게 오른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1일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가구의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지출(명목 기준)은 월평균 42만3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8% 증가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실질 소비지출은 34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되레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먹거리 실질 지출액은 동일 기준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9년 이후 최저다. 그 이전까지 기간을 늘려 비교할 시 2016년 2분기(33만 원) 이후 9년 사이 가장 작은 규모다.

올해 2분기 지출액 자체가 늘어났음에도 물가 상승분을 빼면 실제 소비 규모는 줄었다는 얘기다. 2분기 식료품·음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9%에 달했다.

가구의 먹거리 실질지출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2023년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으로 줄었다가 작년 4분기에 1.8% 늘며 반등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증가율이 0.4%로 둔화한 뒤 2분기에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지난해 4분기 치솟은 원·달러 환율이 수입 원자재 등에 반영되면서 식품 기업들이 제품 출고가를 줄줄이 인상했다. 이는 소비 위축을 불러온 주 원인으로 꼽힌다.

식료품·비주류음료는 전체 소비지출의 14%를 차지한다. 필수 지출인 만큼 소비량을 크게 줄이는 대신 더 싼 대체품을 소비했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분석이다.

한편, 음식점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 식료품 소비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2분기에는 외식비 지출 역사 소폭 증가에 그쳤다.

2분기 가구 식사비 실질지출은 35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0.2% 늘었다. 1분기에 0.4% 줄어든 뒤 다시 늘어났지만 아직까진 둔화 추이가 유지되는 모양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1일 서울 소재 유통매장에서 고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청년미래적금’ 출시… 6~12% 추가 기여

### 李정부 ‘청년 금융정책’

청년미래적금 ‘일반형·우대형’ 운영  
근속 인센티브 등 자산형성 지원 방침

이재명 정부의 청년 금융정책 세부 내용이 공개돼 이목이 집중된다. 우선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한다. 또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지원하는 ‘근속 인센티브’도 신설된다. 여기에 지난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도 상시 운영으로 전환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3일 국회에 2026년도 예산안을 제출한다. 공개된 예산안은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6~12%를 추가 기여하는 ‘청년미래적금’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근속 인센티브’ ▲무주택 저소득 청년 월세지원 등 다양한 청년 정책 예산을 포함했다.

◆청년미래적금, 최대 2200만원 목돈 마련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 원을 3년간 납입하면 최대 2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내년부터 가입이 불가한 ‘청년도약계좌’를 대신해 출시된다. 가입 대상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의 청년(19~34세)으로, 납입액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일반형은 가입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 기본금리에 더해 납입액의 6%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매달 50만원씩 납입할 경우 만기 시 약 2080만 원을 받게 된다. 기존 금융권 상품과 비교하면 연 12%의 적금 상품과 비슷한 수준이다.

‘우대형’은 지난 2023년까지 운영됐던 ‘내일채움공제’와 유사하게 운영된다. 중소기업에 신규 입사한 청년이 입사 6개월 내 가입하면 은행 이자에 더해 12%의 정부지원금을 제공하지만, 3년의 근속 기간을 약정해야 한다. 월 50만 원을 완납할 경우 만기 시 22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이는 금융권 상품과 비교해 연 16.9% 적금 상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내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된다. 청년미래적금과 중복가입도 불가하지만,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상품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청년도약계좌를 보유한 청년은 상품 전환 시 재가입이 불가한 만큼, 상품 특성을 고려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이 높을수록 정부지원금이 줄어드는 청년도약계좌와 달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정한 지

원금을 제공한다. 소득 구간이 연 3600~6000만원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청년미래적금이 유리하다. 납입액 대비 지원금 비중은 청년미래적금이 더 크지만, 가입 기간이 각각 3년과 5년으로 차이가 있는 만큼 만기 시 총 이자액은 청년도약계좌가 더 많다.

◆비수도권 中소 재직 보조금

‘근속인센티브’는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2년에 걸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19~34세 청년이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속 시 2년에 걸쳐 480만 원을 지급하며,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에는 120만 원을, 특별지원지역은 240만 원을 추가 지원해 2년간 최대 7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저소득청년 주거비 지원사업도 내년부터 상시화한다.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고,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청년이라면 2년간 월 20만원의 주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선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확정에 앞서 지난달 26일 개최된 ‘2026년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아동·청년·어르신 등 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저출생을 반등시키고 고령화에도 대처하겠다”고 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나승진 기자 asj1231@

## 5대 은행, 기업대출 중심 수익성 확보 나서

안정적인 대기업 중심 대출 확대  
개인사업자 마중물 공급 필요 지적도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은행들이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대출을 늘리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대출이 안정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신용평가 범위를 확대해 개인사업자에도 기업대출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8월 기준 836조8801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6조2648억원 증가했다.

기업대출은 6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던 시기 8조4211억원 감소했다. 이후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하자 기업 대출로 수익화 하려는 은행이 몰리며 7월(8769억원)과 8월(6조2648억원)에는 다시 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기업대출 잔액은 167억9179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2조9885억원 증가했다. 7월 한달간 7222억원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3배 가량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668조9622억원으로 같은 기간 3조2762억원 늘었다. 7월 중소기업대출은 1조5991억원 늘었다. 2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개인사업 대출을 의미하는 소호대출잔액은 325조1757억원으로 4226억원 늘었다. 다만 개인사업자대출은 한 달 전 증가 폭(6644억원)과 비교해 2000억원 줄었다.

전체를 분석해보면 기업대출 중 대기업대출은 20%,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대출은 64%, 개인사업자 대출은 16%인 셈이다. 은행들이 부실 리스크가 큰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대출을 줄였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안정권에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의 대출을 확대하기보다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성장가능성에 따라 적절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출을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말 은행권 기업대출 연체율은 대기업이 0.14%로 가장 낮고, 개인사업자 0.66%, 중소기업인 0.79%로 가장 높다. 신용평가 시스템에 다양한 평가제도를 덧입혀 개인사업자대출 범위도 확대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 대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신용도가 기준에 못미치는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에게도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은행권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모빌리티 산업 활기

## 현대차·기아, ‘NUMA’ 출범… AI 모빌리티 확산 등 활동

국토부 등 민·관 31개 주체 참여  
미래 모빌리티 분야 협력 고도화  
“기술 기반 포용적 이동권 실현”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다자간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현대차·기아는 그랜드 워커히 서울에서 민·관이 경계 없이 협력하는 협의체, ‘NUMA(Next Urban Mobility Alliance, 누마)’의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월 소프트웨어 비전 행사 ‘Pleos 25’에서 NUMA 구축 계획을 발표한 뒤 처음으로 갖는 공식 행사다.

NUMA는 지역 간 교통 격차, 사회적·신체적 교통 약자의 이동 등 실질적인 사회 문제의 해결을 기업의 혁신과 정부의 정책, 학계의 전문성이 조화롭게 맞물려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시작됐다.



현대차·기아는 1일 그랜드 워커히 서울에서 ‘NUMA’ 출범식을 개최했다.

/현대차그룹

해당 협의체는 단계별 활동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 참여 주체들 간의 긴밀한 상호 협력을 이어간다.

구체적으로 ▲1단계: 지역 교통의 AI 전환 및 기술 기반 교통 문제 해결 ▲2단계: 자율주행 기술 및 미래 모빌리티 디바이스 기반의 자율주행-Ma

aS 실현 ▲3단계: 스마트시티 전환을 위한 AI 모빌리티의 확산 등으로 향후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NUMA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방형 협의체 모델이라는 점이다.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참여사를 지속적으로 받아들여 경계 없는 협력을 가속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정부 기관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기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민간기업은 현대차·기아, 현대카드, KT, CJ대한통운, 네이버클라우드, 티맵모빌리티, 한화손해보험 ▲연구기관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한국교통연구원 등 총 31개 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들과 협력해 협의체를 운영, 참여사 간 활발한 네트워킹과 실질적인 과제 발굴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송창현 현대차·기아 AVP 본부장은 “자율주행과 AI는 일상을 새롭게 설계하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라며 “현대차·기아는 주관사이자 파트너로서 교통약자와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기술 기반의 포용적 이동권을 실현하고, 세계 도시들과 연결되는 글로벌 모빌리티 전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2차관은 “교통은 이제 단순 인프라가 아닌 국민의 일상이자 삶을 연결하는 필수 서비스로서 국민은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관이 힘을 합쳐 교통 격차 없는 대한민국,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하는 사회를 위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현대위아, 모바일 로봇시장 본격 진출

지난달 물류로봇 신제품 공개  
차상장치 다양화… 효율성 제고

현대위아가 물류로봇 신제품을 공개하고 모바일(이동) 로봇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현대위아는 지난달 28~29일 이틀간 경기도 의왕시 현대위아 의왕연구소에서 ‘물류로봇 신제품 런칭 및 고객 초청 시연회’를 열고 가반하중(로봇이 들 수 있는 최대 무게) 300~1500kg의 물류로봇 플랫폼을 국내 고객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였다고 1일 밝혔다.

물류로봇은 산업 현장에서 각종 제조 물류를 이송할 때 사용하는 로봇이다. 현대위아는 이번 신제품 출시로 가반하중 300kg, 600kg, 1000kg, 1500kg의 물류로봇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



지난달 28일 현대위아 ‘물류로봇 신제품 런칭 및 고객 초청 시연회’에 관람객들이 모여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 환경에서 있을 제조 물류 자동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위아는 라이더를 이용해 실

시간 지도와 위치를 확인해 자율주행하는 방식과 바닥의 QR코드나 자속을 인지하고 사전 설정 경로로 이동하는 AGV(Automated Guided Vehicle)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물류로봇을 개발했다.

현대위아는 물품을 싣는 차상장치(Top Module)를 다양화해 물류로봇의 효율성도 크게 높였다. 물품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컨베이어’와 물품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리프트’, 물건의 방향을 돌리는 ‘턴테이블’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현대위아는 또한 물류로봇에 기존보다 더 큰 바퀴를 장착해 엘리베이터 탑승하거나 바닥의 고저 차와 틈새가 있더라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했다.

/양성운 기자 ysw@

## 현대오토에버, 건설기계 보안사업 수주

모빌리티 보안 사업 영역 확장

현대오토에버가 모빌리티 보안 기술 역량을 건설기계 영역으로 확대한다.

현대오토에버는 HD현대인프라코어와 HD현대건설기계 사이버복원력법(Cyber Resilience Act, 이하 CRA) 대응을 위한 사이버 보안 위협평가 사업을 수주했다고 1일 밝혔다.

CRA는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유럽연합(EU) 규제 2027년 12월 전면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유럽에 판매 및 유통되는 모든 디지털 관련 제품들은 CRA를 준수해야 한다. EU는 CRA를 통해 산업용 로봇, 스마트 기기, 제조 설비 등 디지털 기능이 있는 제품의 보안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수주로 현대오토에버는 모빌

리티 보안 사업을 일반 차량에서 건설기계까지 확장했다. 건설기계는 구동장치부터 통신 인터페이스 등 일반 차량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현대오토에버가 추진하는 사이버보안 위협평가 사업의 골자는 건설기계의 주요 시스템과 네트워크가 직면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현대오토에버는 잠재적인 위협요인을 사전에 진단한다. 이를 통해 HD현대가 글로벌 수준의 사이버 보안 품질을 갖춘 건설기계를 최종 고객(End-User)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대오토에버사이버시큐리티사업부장 최원혁 상무는 “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사업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고객 중심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 당정, 금융위 조직개편 본격화… 정책기능 이관 등 논의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전망

당정이 1일 금융위 조직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고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노린다.

강준현 정무위 여당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대통령실 관계자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가진 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안이 나왔다”며 “금융위가 정부위원회 소관이어서 관련해 정부와 대통령실 측에서 정무위원 의견을 듣고자 온 자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에서 수차례 논의해서 나온 안에 대해선 어느 정도



강준현(오른쪽)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우상호(왼쪽) 대통령실 정무수석, 김병욱(가운데)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무위 비공개 당정협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공감이 됐다”며 “다만, 내부적으로 하나 하나 보면 보완사항이 있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걸 논의하느라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강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금융위원회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내용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재배치,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처(소보처) 분리 문제를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 금융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이 많아서 숙제가 많다”며 “국회에서 이 안이 통과되면 여야 합의와 공론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논의하는 내용과 절차가 많이 있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K-메모리기업, HBM 기술개발 지속해야”

>> 1면 ‘메모리 패권 노린…’서 계속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기술력이 따라오면서 엔비디아가 특정 공급사에 종속되지 않고 납품사 다변화를 통해 단가를 낮추고 협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단일 고객 의존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GPU 기업과의 공급 계약을 확대하고 HBM 외 메모리 솔루션 다각화를 해야 한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SK하이닉스의 경우 메모리 역할을 하는 코어다이 분야에서 기여도가 크기에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HBM과 AI 반도체 간 인터페이스 설계는 메모리 기업인 GPU 기업인 어느 쪽이 맡아도 무방하다”라며 “엔비디아가 베이스다이를 직접 설계하려는 것은 성능 최적화를 위한 조치일 뿐 우리 기업에 치명적인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복수의 공급사를 확보하려는 것은 리스크를 줄이고 원가를 낮추려는 의도”라며 “국내 기업들도 이에 대응해 긴장을 늦추지 말고 HBM4 이후 세대까지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hyeon@



KB 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금융

# 사장님들의 힘찬 내일을 앞당기는 국민행복시대

국민은행이  
함께 하겠습니다

Korea Better  
KB국민은행

★태명상사 조성행 사장님도  
KB국민은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은행  
소상공인 프로젝트**

**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

금융 자원과 비금융 자원을  
아우르는 포용금융 지원 프로그램

**전환보증서 담보대출 이자캐시백**

소상공인의 이자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이자·환급 프로그램

**소상공인 컨설팅센터**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경영 등 맞춤 컨설팅 무료 제공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서비스) 계약 체결 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증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보증서 발급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KB국민은행 고객센터: 1588-9999, KB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 ※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3470호(2025.08.22.), 유효기간 2025.08.22.~2026.07.31. 까지

**\*b KB 국민은행**



# 李 대통령 “당분간 국민 어려움 살피고, 민생·경제 집중”

오늘 국무회의서 국가 성장전략 논의  
제조업·바이오 관련 논의도 예정  
지역현안 나누는 ‘타운홀 미팅’ 재개  
순방 귀국 후 강릉시 찾아 민생행보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당분간 국내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번주 현안 중 핵심인 민생·경제에 초점을 둔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전날(8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당분간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며 몇 주간의 국정 기조를 공개했다. 외교의 시간을 보낸 이 대통령이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미래 먹거리 발굴 등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일단 2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선 국가 성장 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강원 강릉시 경포대 인근 식당을 찾아 가뭄으로 인한 상인들의 피해 상황을 청취하며 식당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다. 회의에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 수석은 “이번 국무회의는 보다 많은 국민이 보실 수 있도록 생중계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했다.

오는 4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선 ‘K-제조업 대전환’ 방

안을 토의한다. 우리 제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산업 정책 방향과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주 후반엔 ‘K-바이오 혁신 간담회’도 열린다.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바이오산업을 반도체처럼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제개선

등을 논의한다.

지역을 찾아 주민들과 현안을 논의하는 ‘타운홀 미팅’도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광주·전남, 대전·충남, 부산 등을 찾아 해당 지역 지자체장과 주민들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최근 가뭄이 극심한 강원 강릉시 등 현안이 있는 강원권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 강릉에서 추가 수원지로 도암댐을 활용하는 방안은 수질 오염, 냉해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강릉뿐 아니라 정선 등 주변 지역의 반발이 크다. 이는 환경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강원도, 각 기초단체 등 이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타운홀 미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또 인천지역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타운홀 미팅 개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당 이슈 역시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 간 이견을 조정하고 합

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지난달 활동을 종료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도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을 채택한 바 있다. 다만 이를 해결하려면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 한다.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석은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두 번째 기자회견도 역대 가장 빠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 급수 등 피해가 발생한 강원 강릉시를 찾으며 귀국 후 민생행보를 재개했다. 이 대통령은 강릉 최대 수원지인 오봉저수지를 둘러보고 가뭄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같은날 오후 7시쯤 강릉 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與, ‘K-컬처’ 알리는 한복 vs 野, ‘입법폭주 항의’ 상복

### 李 정부 첫 정기국회 개회식

與野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예정  
국정감사, 추석 이후 실시 전망  
의원식, IRA법·개헌 등 협조 요청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막이 오른 가운데, 여야는 개회식에서 각자 한복과 상복을 입고 상반된 분위기를 연출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앞으로 100일간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예산심사 등 여야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삼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연장 법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세제개편안 합의 처리 등 굵직한 안건도 많아 여야의 대립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회식으로 정기국회의 포문을 열었다. 오는 9~10일에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 오는 15~18일에 각 분야별 의원들이 부처 수장에게 국정 운영에 대해 질문하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는 추석 이후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예산 상임위 별로 예산 심사와 입법 활동에 매진한다.



한복을 입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개회식에서 민주당 의원은 한복, 국민의힘 의원은 상복을 입고 참석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민주당 의원총회와 본회의에서 한복 차림으로 등장해 ‘K-컬처’의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해 정기국회 개회식에 의원 전원 다 한복을 입고 참석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의원식 의장도 이에 호응해 본회의에 한복을 입고 참석했다. 민주당 의원은 전원이 한복을 입지는 않았지만, 상당수 한복 차림으로 본회의장에 들어오며 마치 잔칫날 분위기를 연상케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입법 폭주에 항의하는 의미로 검은 양복

과 검은 넥타이 차림으로 본회의장에 나타났다. 의원들은 근조 리본까지 달며 장례식장 분위기를 연출했다.

의원식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오늘부터 22대 국회의 두 번째 정기회가 시작된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여야 교섭단체 모두 새 지도부가 들어서고 맞는 정기국회라는 의미도 있다”며 “앞으로 100일, 해야 할 일이 많다. 조기 대선과 새 정부 출범에 담긴 의미,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 나라와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라는 국민의 뜻을 깊이 헤아려 입법과 예산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제429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근조리본을 달고 참석해 있다. /뉴시스

우 의장은 불확실성이 높아진 통상환경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판 ‘IRA법’ 논의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한국판 IRA법이) 전략산업의 국내 투자와 일자리 유출 방지,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한미 관세 협상에서 가장 타격을 입은 철강산업 지원과 녹색 전환을 돕는 ‘K-스틸법’도 발의돼 있다. ‘신(新) 관세 냉전’과 ‘탄소 무역장벽’에 대응하는 방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자신이 임기 내내 강조해온 개헌에 대해서도 여야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10월이면 개헌을 논의할

만한 충분한 여건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늦어도 10월 초에는 개헌특위 구성결의안을 의결해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며 “개헌특위 구성에 합의해줄 것을 여야 정당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 의장의 바람처럼 여야가 대화를 복원하고 협치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며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고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를 조여오는 삼특검 연장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곧 열릴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제 특검도 모자라서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특검에서 자기들끼리 죄를 끼워 맞추다가, 무리한 수사로 사법부에서 엉장 발급이 기각되니까 특별법원까지 만들어서 기어이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조작해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면서 “더 이상 삼권분립과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폭거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석유화학 산업 불황 극복 위해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해야”

### ‘석유화학 산업지원 특별법’ 공청회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해온 석유화학 산업이 중국발(發) 공급과잉과 경기 침체로 인한 글로벌 수요부진으로 위기에 내몰리는 가운데, 국회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 국내 대표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여수를 포함한 전남동부권과 울산, 충남 서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 11명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석유화학 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달 11일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가 해당 산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전기요금 감면 및 보조,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촉진, 인력 양성 대책 수립, 근로자 보호조치 등을 담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토론에 나선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법안에 담긴 석유화

학기업의 사업재편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금지규정 예외 조항을 두고 “석유화학 산업에서 불황 극복을 위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기업협력법’ 개정 등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련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인가제도의 경우

인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제도가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입법적 지원을 호소하는 기업들의 목소리도 나왔다. 광기섬 롯데케미칼 경영지원본부장은 “사업재편 신청 과정에 ‘변경 공시’를 추가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용수 SK 지오센트릭 경영기획실장은 “사업재편 과정에서 고용 불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재직자·이직자 대상 재교육 등 맞춤형 인력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 SK하이닉스 AI의 미래를 높이 끌어올리다

AI기술의 가능성을 한 단계 높이는 일  
우리의 앞선 AI 메모리로부터 시작됩니다





# GA 급성장… 독립 ‘보험판매전문회사’ 전환 논의 본격화

〈법인보험대리점〉

보험사 대리인 지위 논란 속  
독립 금융회사 격상 논의 활발

수수료 협상권·1차 배상책임  
소비자·정보보호 등이 관건

복수 보험사 상품을 비교·판매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이 시장의 중심축으로 커지면서 대리인 지위를 넘어선 ‘보험판매전문회사’ 전환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판매 자율성에 걸맞은 책임과 감독을 부여하자는 목소리와 함께 수수료 협상 구조와 소비자 피해에 대한 1차 배상책임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시장에서 GA는 설계사 수와 초회보험료 비중 등에서 전속채널을 상회할 만큼 성장하고 있다. 지난 2024년 말 기준 GA 소속 설계사 수는 약 29만명에 달한다. 보험사 전속설계사(18만 명)의 1.5배 이상으로 확대됐고 전체 보험설계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4.3%에 이르렀다.



Chat GPT가 생성한 법인보험대리점 GA 이미지.

다만 여전히 보험사의 대리인 지위에 묶여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본사 차원의 내부통제도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GA가 실질적 판매·관리를 수행하는 독립적 금융회사로 전환돼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과 자격 요건을 갖추는 방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만약 판매전문회사로의 전환이 이뤄

진다면 GA는 보험사와 수수료율·사업비·보험료 등에 대해 직접 협상할 권한을 갖게 된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1차 배상책임 역시 스스로 부담하는 구조가 전제된다.

이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의 시 고려 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시 전

문성·자율성 제고와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에 따른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수료 협상 구조 변화는 중소 보험사의 협상력 약화, 사업비·보험료 인상 압력, 고객정보 활용 확대에 따른 정보보호 이슈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지원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판매채널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될 경우 수수료 협상력을 바탕으로 보험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가 형성될 수 있다”며 “GA에서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객정보 활용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이슈 역시 새로운 리스크로 부각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수수료를 보험사로부터 수취하는 현행 구조를 유지하면서 협상권과 1차 책임을 동시에 부여할 경우 수수료 고지 방식의 실효성 강화,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일정 기준을 갖춘 대형 GA부터의 단계적 전환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한 수수료 협상이 이뤄지도록 금

융당국의 가이드라인과 감독체계를 보완하고 단순 계시 수준을 넘어 소비자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고지·공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박지원 연구위원은 “GA는 해당 제도를 통해 보험사에 대한 종속성을 완화하고, 수수료율 협상력 확보, 고객관리의 고도화, 수익원 다변화 등 독립적인 시장 주체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반면 금융당국은 보험판매전문회사를 금융회사로 정립하고, 내부통제 체계의 정비, 자본 요건 강화, 지배구조의 투명화와 불완전판매 발생 시 1차 배상책임 부여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판매채널이 실질적인 1차 배상책임을 이행하려면 배상 능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체계 정비와 함께 감독기관의 사후 점검 체계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 3.8조 부실채권 정리나선 새마을금고, 건전성 회복 주력

작년 최대 손실실에 연체율도 비상  
건전성 제고 위해 대손충당금 확대  
새 부실채권 매각채널도 발굴 나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널 발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일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올 상반기 총 3조 8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상반기에도 2조원 가량의 부실채권을 정리했다.

이번 부실채권 매각은 연체율 관리 차원이다. 건전성 제고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도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실제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

에만 1조400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은 바 있다. 대손충당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출채권의 부실 및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완충자본의 역할을 한다.

새로운 부실채권 매각채널 발굴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실제 새마을금고는 작년 9월 ‘유암코-MG PF정상화 펀드’를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바 있다. 현재 펀드 누적 투자 약정액은 1800억원에 달한다.

새마을금고가 건전성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실적 부진에 따른 재무 건전성 악화 때문이다. 실제 새마을금고는 전년도 기준 1조7832억원의 역대 최대 손실실을 기록한 바 있다.

연체율도 꾸준히 상승 중이다. 새마

을금고 연체율은 지난 2020년 말 2.10%에서 2021년 1.93%로 소폭 하락했으나, 2022년 말 3.59%로 다시 상승했다. 이후 2023년 5.07%, 2024년 6.81%까지 올랐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부동산·건설 경기 회복 지연과 가계대출 규제 등 어려운 경영환경과 대규모 부실채권 매각, 대손충당금 적립 등 건전성 관리 강화를 당분간 손실 발생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다만, 앞으로 건전성 제고 조치와 지속적인 경영 혁신 노력이 이어진다면 내년부터는 건전성 지표가 개선되고 손실이 축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역시 “부동산 시장의 회복 지연과 PF사업장 정리로 향후 1~2년 간은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행정안전부의 지도와 협력하에 위기 극복을 위한 체질개선과 건전성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에 나섰다. 개정안은 상호금융업권까지 금소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새마을금고의 감독 및 처분 권한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담고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신한은행 장기거래 고객 대상 머니쿠폰 등 이벤트

신한은행이 10년 이상 꾸준히 거래한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신한 장기거래 고객 동행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먼저, 9월 1일부터 장기 거래고객에게 최대 연 7% 금리의 ‘모두의 적금’ 가입 시 사용 가능한 1만원 머니쿠폰을 제공하며 쿠폰은 ‘신한 SOL뱅크’에서 수령 가능하다. 또한 신한은행은 9월 29일에는 경기도 광주시 소재 화담숲에서 열리는 ‘화담숲에서 걸어요’ 행사에 만 50세 이상 우수 장기거래 고객을 초청한다.

이번 행사는 신한은행과 화담숲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관 행사로, 9월 15일까지 ‘신한 SOL뱅크’ 이벤트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 고객 중 추첨을 통해 화담숲 전관행사 초대권을 제공하고 당첨자는 9월 18일 개별 알림톡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 가을 분양 큰장 선다… 3만여 가구 공급

수도권 1.8만세대 지방 1.2만세대  
6·27 대출 규제에 자금부담 변수

9월 아파트 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나 ‘분양대전(大戰)’이 예상된다. 지난 8월 연가된 단지까지 합쳐지면서 전년 동월 대비 약 47% 증가할 전망이다.

1일 직방에 따르면 9월에는 전국서 총 3만42세대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난해 같은 달(2만450세대) 대비 47% 늘어난 규모다. 일반분양 물량만 따로 보면 1만9753세대로, 전년 동월(1만2821세대)보다 54%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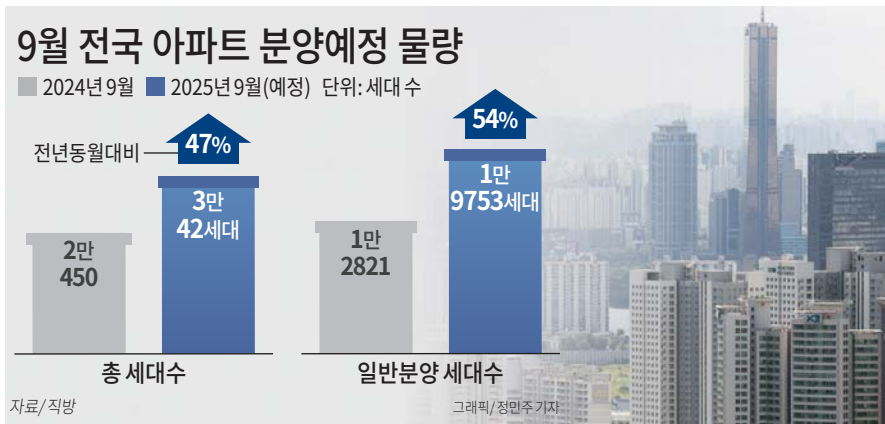
앞서 8월 분양시장에서는 하반기 ‘대어’로 꼽힌 ‘잠실르엘’, ‘디에이치 아텔스타’ 등 주요 단지가 공급돼 실적률이 69%를 기록했다. 원주역 우미린더스텔라, 서면 씨미터뉴 등 지방 브랜드 단지들도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1만8032세

대, 지방이 1만2010세대다. 수도권은 경기 1만2375세대, 인천 4472세대, 서울 1185세대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방은 부산이 4087세대로 가장 많고 충북(2580세대), 충남(1900세대), 경북(1835세대), 울산(1608세대)이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동작구 사당동 ‘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사당3동 지역주택조합)과 중랑구 상봉9-I구역(옛 이마트 상봉점 부지)에 들어서는 ‘상봉센트럴 아이파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경기 지역에서는 광명 ‘철산역자이(2045세대)’, 구리 교문동 ‘중흥S-클래스힐더포레(1096세대)’, 안양 ‘자이헤리티온(1716세대)’, 오산 세교 ‘우미린레이크시티(1424세대)’ 등 대단지 물량이 예정됐다. 인천에서는 부평 ‘두산위브&수자인부평더퍼스트(1299세대)’, ‘검단센트레빌에듀시티(1534세대)’ 등이 공급된다.



지방 주요 단지로는 부산 동래구 ‘힐스테이트사직아시아드(1068세대)’, 충남 아산 ‘모종서한이다음노블리스(1079세대)’, 경북 구미 ‘두산위브더제니스구미(1372세대)’ 등이 있다.

9월 분양시장은 물량 확대와 함께 성수기 효과가 기대되지만, 지난 6·27 대출 규제 이후 이어지는 자금 부담이 변수로 꼽힌다. 수도권에서는 한정된 공급 속에서 자금 여력, 중도금·잔금 대출 가능 여부, 가격 메리트 등이 실수요자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브랜

드 파워와 입지 경쟁력이 뚜렷한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이 몰리고, 같은 단지 내에서도 면적·타입별로 청약 성패가 갈릴 수 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팀장은 “가을 분양시장은 공급 물량이 풍부하더라도 대출 규제 영향으로 실수요자의 선택은 더 신중해질 것”이라며 “수도권은 자금 조달 여건과 입지 경쟁력, 지방은 면적 구성과 생활 인프라 조건에 따라 청약 성적의 양극화가 뚜렷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 SC제일은행 퍼스트정기예금 가입 최고 年2.7% 특별금리

SC제일은행은 퍼스트정기예금(6·12개월제)에 가입하는 최초 거래 고객에게 최고 연 2.65~2.7%의 특별금리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권은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SC제일은행 영업점을 통해 퍼스트 정기예금에 3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로 가입하는 첫 거래 개인 고객에 한해 6개월제 가입시 최고 2.7%, 12개월제 가입시 최고 2.65%의 특별금리를 제공한다. 총 모집한도는 3000억원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K-배터리 업계,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성장 돌파구 모색

모건스탠리, 휴머노이드 산업  
2035년 60조 달러 규모 성장 전망

용량·출력 높은 고성능 배터리 필수  
LG엔솔, 46시리즈 원통형 생산  
삼성SDI-현대차, 전용 배터리 개발

국내 배터리 업계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차세대 성장 기회로 주목하고 있다. 지금까지 리튬 배터리 수요는 전기차와 모바일 IT·에너지저장장치(ESS)에 집중돼 왔지만 로봇 활용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 새로운 수요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조업, 서비스업, 가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단순한 틈새시장을 넘어 전기차 이후 배터리 산업의 흐름을 바꿀 잠재 시장으로 평가된다.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AMECA)의 모습. 인간처럼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다. /화성특례시

1일 업계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 시장이 장기적으로 전기차를 뛰

어넘는 제2의 성장 축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휴머노이드 산업이 2035년 6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휴머노이드는 인간과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갖춘 로봇으로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중국의 세계 공장 역할 약화 등 구조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수요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의 배터리 지속 시간은 1~2시간에 불과하다. 복잡한 움직임과 인공지능(AI) 기술 적용으로 휴머노이드의 학습·추론 능력이 향상될 수록 전력 소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배터리보다 용량과 출력 모두를 크게 키운 고성능 배터리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사들은 고성능

제품 개발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휴머노이드 전용 배터리’를 따로 개발하기보다 46시리즈 원통형 배터리의 생산을 본격화하며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을 끌어올린 신제품 라인업으로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이를 통해 휴머노이드 보급이 본격화될 경우 고성능 원통형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도 진행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와 협업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2세대 모델에 차세대 4680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삼성SDI는 현대차와 지난 2월 고성능 로봇 전용 배터리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미 현대차 모빌리티 랩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로봇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휴머노이드 배터리 개발 단계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한재권 한양대 로봇공학과 교수는 “현재는 휴머노이드 전용 배터리 개념이 뚜렷하지 않고 전기차용 배터리를 그대로 쓰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내부 공간 제약 탓에 용량은 수 킬로와트에 불과해 몇 시간도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에너지 밀도 향상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휴머노이드 로봇은 단순 소비재가 아니라 생산성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설비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며 “비용보다는 성능이 우선되는 만큼, 고성능 배터리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철강업계, 전기로 제철공정 확대… ‘고급 스크랩 확보’ 과제

폐차서 나오는 스크랩 ‘핵심 소재’  
도요타, 美 재활용업체 인수해 생산

친환경 전환 기조가 강화되면서 국내 철강업계에서도 전기로 제철 공정이 확대되고 있다. 전기로 생산에는 불순물이 적고 품질이 균일한 고급 스크랩이 필수적인 만큼 국내외 철강·자동차 업계에서 고급 스크랩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3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 전기로 철강사인 동국제강은 전기로 공정 확대에 맞춰 ‘하이퍼 전기로’ 기술을 고도화하며 탄소 배출 최소화해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폐차에서 발생하는 고급 스크랩을 전기로 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내 스크랩 재활용 장비 기업 에스피아이(SPI)는 동국제강과



동국제강 인천공장에 한 직원이 예코아크전기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동국제강

현대제철 등 주요 제강사와 재활용 업체에 장비를 공급하며 안정적인 스크랩 확보와 재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포스코는 광양에 연산 250만t 규모 전기로 설비를 내년 상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미국 루이지애나에 연산 270만t 규모 전기로 제철소 건설

에 착수했다.현대제철은 전기로 공정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철스크랩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완제품을 효율적으로 운송하기 위해 제철소 인근에 10만톤(t)급 이상 선박이 접안 가능한 심해 부두를 건설할 계획이다.

전기로는 철스크랩과 직접환원철을 녹여 철강을 생산한다. 철광석을 원료로 쓰는 고로 대비 탄소 배출이 적지만, 품질이 균일한 고급 스크랩이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고급 강판 생산이 가능하다.

폐차에서 나오는 스크랩은 불순물이 적어 A급으로 분류되며, 차량 1대당 약 1t의 스크랩이 발생한다. 자동차 외판과 새시에서 발생하는 프레스스크랩은 전기로의 핵심 소재로 쓰인다. 스테인리스(STS) 스크랩 역시 프리미엄 가치를 인정받는다. 국내 STS 전문기업 케이이앤피가 일본제철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글로벌 제강사들이 안정적 스크랩 확보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 사례도 주목된다. 일본 도요타 그룹의 종합상사 도요타통상은 최근 미

국 재활용업체 래디우스를 약 1조2500억 원에 인수했다. 래디우스는 미국 전역 100여 개 재활용 센터에서 연간 60만대 이상의 차량을 폐차해 약 450만t의 스크랩을 생산한다. 이 중 43%는 미국 내에서 사용되고, 나머지는 중국·한국·일본 등 아시아로 수출된다. 도요타는 이를 기반으로 자동차 생산·판매·폐차·재활용의 순환 구조를 구축해 북미 판매 차량이 다시 도요타의 강제 자원으로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스크랩 자급률이 높은 편이지만, 전기로 설비 확대에 따라 고품질 스크랩 수요가 늘어나면 해외 수입 의존도가 불가피할 수 있다”며 “앞으로 스크랩 확보 전략이 철강사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hledhale@

## LG AI연구원, 韓-英 금융 AI 협력 논의

英 무역·경제 국무상 공식 방문

더글라스알렉산더 영국 무역정책 및 경제안보 국무상이 LG 산하 LG AI연구원 공동 연구원장을 만나 한·영 인공지능(AI)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LG AI연구원은 더글라스 알렉산더 영국 무역정책 및 경제안보 국무상이 서울 강서구의 LG AI연구원을 공식 방문했다고 1일 밝혔다.

알렉산더 국무상은 영국의 런던증권거래소(LSEG)와 LG AI연구원 간 금융 인공지능(AI) 서비스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방문에 나섰다. LSEG는 글로벌 금융시장 인프라 및 데이터를 보유한 영국 대표 금융 기업이다.

LG는 이날 LSEG와의 협업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영국의 연구개발(R&D) 에코시스템과 AI 산업 전반과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LG AI연구원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LSEG의 방대한 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돕는 ‘금융 AI 예측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LG AI연구원은 자체 개발한 거대언어모델(LLM) ‘엑사원(EXAONE)’을 기반으로 금융 예측 AI 모델을 자체 금융 예측 AI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투자 분석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또 LSEG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글로벌 고객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양측 간 기술 협력은 지난 7월 열린 ‘LG AI 토크콘서트 2025’에서 아르만 사호비치 LSEG 아태지역 데이터 플랫폼 설루션 총괄이 직접 발표할 바 있다. LG AI연구원과 LSEG는 이번 파트너십을 기념하기 위해 이달 중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에서 공식 기념식을 열고 금융 예측 AI 서비스를 시작한다.

LG AI연구원 임우형 공동 연구원장은 “첨단 미래 예측 AI 기술을 금융 시장에 접목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에서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삼성전자 ‘AI 구독클럽’, 편의성·혜택 강화

5가지 서비스 구성 ‘블루패스’ 도입

삼성전자가 지난해 선보인 ‘AI 구독클럽’의 고객 편의성과 혜택을 한층 끌어올린다.

삼성전자는 ‘AI 구독클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가격 부담 완화 ▲한층 강화된 케어 서비스 ▲다양해진 결제 수단 ▲업계 최다 22개 제휴 혜택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제품의 설치부터 AS까지 모든 과정에서 고객 편의성을 높인 5가지 서비스로 구성된 ‘블루패스’를 도입한다. 구독 고객 전용 케어 ‘블루패스’ 서비스는 ‘AI 올인원 2.0’ 요금제에 적용된다.

삼성전자는 기존 AI 구독클럽에서 고객 반응이 좋았던 유·무료 구독 서비스에 고객들이 원했던 신규 서비스들을 결합해 ‘블루패스’ 서비스를 구성했다.

먼저 ‘AS 패스트트랙’은 구독 계약 기간 내에 횟수 제한 없이 우선적으로

AS 접수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하나 더 서비스’는 구독한 제품의 방문 케어를 받을 때 삼성전자 가전 제품을 추가 비용 없이 하나 더 점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해당 제품은 삼성전자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시스템에어컨, TV, 건조기, 김치냉장고이다.

삼성전자는 구독 프로그램의 결제 방식을 새롭게 도입되는 ‘AI 올인원 2.0’ 요금제부터 대폭 확대해 고객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제품과 케어서비스가 결합된 ‘올인원’ 요금제 가입시 앞으로는 고객이 기존 보유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특히 총 4종의 구독 제휴카드 ▲삼성전자 AI 구독 삼성카드 ▲삼성 AI 구독 KB 국민카드 ▲삼성 AI 구독 하나카드 ▲삼성 AI 구독 우리카드 등이 새롭게 도입돼 고객은 전월 실적에 따라 월 최대 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현정 기자

## HD현대-SK해운 AI 화물운영 솔루션 실증

HD현대-SK해운과 함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용 ‘인공지능(AI) 기반 선박 화물운영 솔루션’ 실증에 나선다.

HD현대의 조선 부문 계열사인 HD한국조선해양·HD현대중공업·HD현대마린솔루션은 최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SK해운과 차세대 ‘AI 화물운영 솔루션’(이하 AI-CHS) 공동개발에 관한 서명식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AI-CHS는 HD한국조선해양이 자체 개발한 AI 기반의 화물운영 솔루션이다. LNG운반선의 운항 및 정박 과정에서 자연 발생하는 증발가스의 양을 예측하고 이를 재액화 설비·발전기·메인 엔진 등 주요 설비에 적절히 분배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돕는다.

기존에는 숙련 선원의 경험에 의존했지만 AI-CHS는 운항 조건과 화물 상황을 종합 판단해 초급 선원도 안정적으로 LNG 화물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혜은 기자



# 2만9000개社 역대 최대 참여 이벤트·특가전 등 행사 풍성

## 동행축제 개막

전통시장·지역축제 등 144곳 행사  
12개 온라인 플랫폼 소상공인 특별전  
공영홈쇼핑, 현장 라이브 방송 진행

역대 가장 많은 2만9000여개사가 참여하는 9월 동행축제가 1일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이달 30일까지 9월 한 달간 펼쳐지는 동행축제에는 전통시장, 야시장, 지역 축제 등 전국 144곳에서 풍성한 행사가 펼쳐진다.

중기부는 지난달 30~31일 이틀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9월 동행축제 개막행사'를 진행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개막식에서 "절약은 변하지 않는 미덕이지만 때로는 가치 있는 소비가 더 큰 희망을 가져온다"며 "동행축제를 통해 작지만 따뜻한 소비가 모여 서로에게 큰 힘이 되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주말 제주에서 진행한 '소상공인 역량 강화 통합 워크숍'에 참석,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지난달 31일 제주 올레 8코스에서 진행된 '제1회 전국소상공인 한마음걷기대회'에서 (앞줄 왼쪽에서 5번째부터)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공연

이런 가운데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9월 동행축제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네이버·롯데온·G마켓 등 12개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한 소상공인 특별전(최대 30% 할인) ▲동반성장몰 추석 맞이 특별전 ▲행복한백화점 브랜드 특가전(최대 80%) ▲롯데백화점 잠실점(9.9~9.11)과 부산점(9.19~9.25)에서 '우수 중소기업 판매전' 등을 각각 연다.

공영홈쇼핑도 판로지원 행사에 적극 동참한다. 공영홈쇼핑은 동행축제 개막식 현장에서 공영라방 '릴레이 현장 라이브'를 진행해 지역 특산물을 판매

하기도 했다.

한편 동행축제는 9월 한 달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2만6000여개 제품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8개 글로벌 쇼핑몰에서도 국내 소상공인 400곳의 제품을 저렴하게 만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선 전통시장 등 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 내 판판면세점 4곳과 현대백화점, 행복한백화점 등 중소기업 제품 전용판매장 6곳에서 700여개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이와 함께 지역 상권의 핵심인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매출 증진을 위한 여러 이벤트도 전국에서 다양하게 펼쳐진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현대로템,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 참가

# ‘폴란드형 K2 전차’ 첫 출격

다목적 무인차량 등 목업 전시  
“폴란드 방산업계 협업 기회 모색”

폴란드형 K2 전차(K2PL 주력전차)가 동유럽 최대 규모 방산전시회에서 첫 선을 보인다.

현대로템은 오는 2일(현지시간)부터 5일까지 폴란드 키엘체(Kielce)에서 열리는 '제33회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MSPO)'에 참가한다고 1일 밝혔다.

현대로템이 4년 연속으로 참여하는 MSPO는 폴란드에서 199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제방산전시회다. 지난해에는 35개국 방산 업체와 총 3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지난 8월 폴란드 군비청과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을 체결한 현대로템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전차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 미래무인기술까지 폭넓은 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현대로템은 현지에서 양산될 폴란드형 K2 전차를 목업으로 공개한다. 오는 2028년부터 생산될 폴란드형 K2 전차에는 적군의 대전차 유도 미사일과 드론 위협에 대응 가능한 능동방호장치(APS)와 전파를 교란해 드론의 정상 가동을 막는 드론 제머(ADS)가 탑재된다. 여기에 원격사



현대로템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 전시관 전경. /현대로템

격통제체계(RCWS)와 성능이 개선된 특수 장갑으로 작전수행능력도 더욱 높아진다.

향후 국내 전차에도 능동방호장치와 드론 제머 등을 탑재해 우리 군이 더 안전하고 강력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여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 전동화 등 미래 기술이 집약된 다목적 무인차량(HR-세르프)도 실물 크기의 목업으로 함께 전시된다. 이 밖에 차세대 전차인 유무인 복합 전차와 방호력 증강에 초점을 맞춘 차세대 장갑차도 목업으로 전시된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폴란드 방산 업계와 더욱 광범위하고 긴밀한 협업 기회를 모색하고 현지 안보 수호는 물론 K-방산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중견기업 62% “하반기 수출 줄어들 것”

美 관세 영향 등 수출 악화 전망

중견기업 10곳 중 6곳은 하반기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상호관세 현실화와 철강·알루미늄과 생수 등에 대한 품목관세 확대로 수출 감소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025년 하반기 중견기업 수출 전망 및 애로 조사'를 실시해 1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1.5%는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올해 하반기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악화 전망'은 상반기보다 22.8%포인트(p) 늘어 더욱 암울해졌다. ▲글로벌 경기 둔화(67.5%) ▲관세 부담 증가(53.7%) ▲환율 변동성 확대(21.1%) 등이 주요 요인(복수응답)으

로 꼽혔다. 특히 관세 부담이 증가했다는 응답률이 전반기의 15.6%보다 크게 상승했다.

상반기 수출 과정 중 가장 많은 애로를 경험한 국가는 미국(49%), 중국(18.0%), 베트남(5.5%) 순으로 조사됐다. 자동차(72.4%), 고무·플라스틱(80.0%), 금속(78.9%)은 미국이, 화학물질 업종은 중국(47.6%)에서 고전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수출 실적 악화 대비 방안으로는 '수출국 다변화'(55.3%)가 첫 손에 꼽혔다. '품질 향상 및 가격 조정'(35.8%), '내수 비중 확대'(35.0%), '신제품 출시'(20.3%) 등도 거론됐다.

향후 수출 전략 수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국제 이슈로는 '미국 통상 정책 및 법률·제도 변화'(49.5%)가 가장 많

이 꼽혔다. '중국 시장 변동성'(19.0%), '미·중 경쟁 심화 및 공급망 재편'(10.5%) 우려도 높았다.

이런 가운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로는 '무역·수출 금융 지원 확대'(47.0%), '주요 원자재·부품 수입 관세 인하 및 공급 안정 지원'(24.5%), '물류 관련 비용 및 인프라 지원'(14.0%) 등이 거론됐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한미 상호관세 협상 타결과 정상회담을 통해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관세 부담 증가와 세계 경기 둔화, 공급망 재편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기업의 자구노력에 더해 무역금융 확대, 원자재 관세 인하, 물류 인프라 지원 등 정부 지원을 전향적으로 강화, 민관의 협력 체계를 강고히 구축함으로써 변화하는 무역·통상 환경에 대한 산업 전반의 대응 역량을 증대해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 LX하우시스, 층간소음 저감 기술력 입증

LH '차단성능 1등급' 인정서 획득

LX하우시스와 GS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바닥충격음 품질시험에서 업계 최저 수준의 낮은 소음수치를 기록하며 층간소음 저감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와 관련해 LX하우시스는 GS건설과 공동 개발한 '층간소음 저감 바닥구조'가 최근 LH품질시험인정센터에서 실시한 바닥충격음 품질시험에서 중량충격음 31dB, 경량충격음 27dB을 기록, LH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 인정서를 획득했다고 1

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기록한 중량충격음 수치(31dB)는 1등급 기준(37dB 이하)보다 6dB이 낮은 업계 최저 수준의 수치로 국내 역대 최고 수준의 층간소음 저감 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이번에 1등급을 확보한 층간소음 저감 바닥구조는 실제 주거환경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음 저감이 가능한 혁신적인 기술"이라며 "향후 GS건설과 함께 현장 적용 확대에 속도를 높여 국내 주거문화의 고질적 문제인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 벤츠코리아, 이상국·김은중 부사장 선임

마케팅·세일즈 역량 강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마케팅 및 세일즈 역량 강화를 위한 부문장급 인사를 실시했다.

벤츠 코리아는 1일 디지털,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부문에 이상국 부사장을, 제품 및 세일즈 부문에 김은중 부사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세일즈 부문 총괄을 맡았던 이상국 부사장은 디지털,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부문 총괄 부사장으로 임명됐다. 기업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고객들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경험 강화를 위



이상국 벤츠코리아 부사장 김은중 벤츠코리아 부사장

한 디지털 비즈니스, 마케팅, 홍보 및 사회공헌활동 등을 총괄할 예정이다.

김은중 제품 및 세일즈 부문 총괄 선임 부사장은 제품 전략, 인증뿐 아니라 세일즈 기획 및 리테일 운영 등도 총괄한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신설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가입

앞으로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다.

사치품이나 대형 마트 등에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영세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에 충실해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기 수원시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에서 간담회

를 열고 온누리상품권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골목 상권 등 취약 상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년 처음 도입했다. 하지만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대형 마트, 대형 병·의원, 고가 사치품 및 기호 식품 취급 업종까지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누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중기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가맹점 기준을 신설했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금액 기준을 신설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금융위원회의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 등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혼란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며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부정 유통 근절에 매진하는 동시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안정적인 온누리상품권 제도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주최

글로벌대학사업단  
WONKWANG UNIVERSITY

ORGANOID  
SCIENCES

R—G.B  
INSTITUTE

Animal Free Initiative

# 글로벌 레드-그린 융합 바이오 심포지엄 2025

Global Red-Green Bioconvergence Symposium 2025

: 전북특별자치도 지·산·학 협력 국제 컨퍼런스

Date

2025년 9월 25일 (목)  
10:00 - 17:00

Venue

원광대학교 프라임관  
컨퍼런스홀 1F



사전등록 선착순 마감

Program

|                           |                       |                                                                                                    |                                                         |
|---------------------------|-----------------------|----------------------------------------------------------------------------------------------------|---------------------------------------------------------|
| Session I                 | 10:30                 | 개회사                                                                                                | 박성태 총장 원광대학교                                            |
|                           | 10:35                 | 환영사                                                                                                | 유종만 대표 오가노이드사이언스                                        |
|                           | 10:40                 | 축사                                                                                                 | 김관영 전북도지사 정현율 익산시장                                      |
|                           | 10:50                 | 글로벌대학 W.I.T.H. 벨리 1주년 발표                                                                           | 김우순 WITH벨리혁신본부장 원광대학교                                   |
|                           | 11:00                 | R-G.B 연구소 1주년 및 비전 발표                                                                              | 배동혁 부소장 R-G.B연구소                                        |
|                           | 11:10                 | AFI-동물이 아닌 과학으로 증명하다                                                                               | 유성지 대표 애니멀프리이니셔티브(AFI)                                  |
| Session II                | 11:30                 | 농생명 그린바이오 과학기술 정책                                                                                  | 우미옥 사무관 농림부 과학기술정책과                                     |
|                           | 11:40                 | 전북테크노파크의 첨단바이오 분야 R&D 및 기업 지원사업                                                                    | 이송인 단장 전북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
|                           | 11:50                 | 전북 생명산업의 미래와 출연연의 협력적 역할                                                                           | 박두상 전북분원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                           | 12:00                 | 오찬 및 네트워킹                                                                                          |                                                         |
| Chair: 김기석 박사 (국가독성과학연구소) |                       |                                                                                                    |                                                         |
| Session III               | 13:00                 | Development regenerative medicine for inflammatory bowel disease                                   | 류이치 오카모토 교수 도쿄의과치과대학(TMDU)                              |
|                           | 13:30                 | Genome Editing for Climate-Resilient and Sustainable Crops: Innovations at IGI's PGTF              | 조명제 교수 Innovative Genomics Institute (IGI), UC Berkeley |
|                           | 14:00                 | The Microcosmos of Human Intelligence through the Brain in a Dish                                  | 최민이 교수 KAIST 뇌인지과학과                                     |
|                           | 14:30                 | Integrating Multi-Omics and AI to Decipher Disease Mechanisms in Organoid Research                 | 한남식 교수 University of Cambridge                          |
|                           | 15:00                 | Coffee Break                                                                                       |                                                         |
|                           | Chair: 추영국 교수 (원광대학교) |                                                                                                    |                                                         |
|                           | 15:20                 | Applications of Mature Intestinal Organoids Derived from Human Pluripotent Stem Cells              | 손미영 소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                           | 15:40                 | Development of an organoid-based toxicity evaluation model for cardiac and neural safety screening | 김기석 본부장 국가독성과학연구소                                       |
|                           | 16:00                 | Influenza Virus in Companion Animals                                                               | 유광수 교수 원광대 동물보건학과                                       |
|                           | 16:20                 | 한우의 유전능력 추정과 데이터 기반 축산업                                                                            | 서동원 연구소장 T&T 리서치                                        |
|                           | 16:40                 |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소개 및 운영사례                                                                              | 이성근 박사 전북대 인수공통감염센터                                     |
|                           | 17:00                 |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신약개발 및 재생치료제 개발 현황과 비전                                                                  | 이경진 상무 오가노이드사이언스                                        |
|                           | 17:20                 | 폐회사                                                                                                | 사회자                                                     |

※ 세부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새로운 관심사 발견”… 네이버, AI로 맞춤형 검색어 추천

‘최근검색어’ 영역 전면개편  
AI로 관심사·검색 맥락 분석  
‘내가 검색할 만한 것’ 보여줘  
숏텐츠 NOW 영역 신설도

네이버가 모바일 검색 서비스의 핵심 기능인 ‘최근검색어’ 영역을 AI 기반으로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사용자가 입력했던 검색 기록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이 관심사와 검색 맥락을 분석해 맞춤형 키워드를 제안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네이버는 1일 “검색의 패러다임을 개인화·맞춤화하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이번 업데이트가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네이버 모바일 검색창 하단에는 사용자가 직접 검색했던 키워드가 최대 30개까지 순차적으로 노출됐다. 그러나 이번 개편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5개만 노출되며, 사용자가 원할 경우 ‘펼치기’ 버튼을 눌러 기존처럼 최대 30개까지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는 모바일 화면 크기와 이용자 행동 패턴을 고려해 최근검색어 노출 개수를 줄이고,



네이버 AI검색 개편.

/네이버

그만큼 AI 추천 영역을 강화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AI 기반 추천 검색어다. 네이버는 자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해 이용자의 최근 검색 맥락과 관심사, 실시간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키워드를 함께 노출한다. 단순히 ‘내가 검색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검색할 만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검색 접근성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네이버는 이번 개편과 함께 ‘숏텐츠 NOW(나우)’ 영역을 신설했다. 이는 모바일에서 급성장하는 숏폼 콘텐츠 소비 행태를 반영한 기능으로, 현재 인기 있는 숏폼 영상 키워드를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사용자는 최근검색어와 더불어 숏폼 트렌드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과 콘텐츠 소비를 동시에 끌어내는 효과를 노린 셈이다.

네이버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문서 요약 및 추천 서비스인 ‘맞춤형 AI 블록’ 기능도 일부 사용자 대상으로 A/B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관련 문서를 인공지능이 요약·추천해주는 기능으로, 현재는 엔터테인먼트·스포츠·게임 분야에 우선 적용 중이다.

네이버의 이번 개편은 최근 글로벌 IT업계의 핵심 키워드인 ‘초개인화’ 전략의 일환이다. 검색·뉴스·쇼핑 등 모든 영역에서 이용자의 취향과 맥락에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단순 검색어 기록을 넘어 AI 추천을 결합하면서 네이버가 구글과 차별화할 수 있는 ‘국내 특화 맞춤형 검색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용자 반응은 긍정적이다. 실제로 네이버 모바일 검색을 이용하는 2030 세대는 “불필요하게 길게 늘어섰던 검색 기록 대신 필요한 것만 보이기 깔끔하다”, “AI 추천 검색어에서 오히려 새로운 관심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이 향후 네이버

의 광고·커머스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AI 추천 검색어와 숏폼 콘텐츠 노출이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쇼핑 검색이나 브랜드 키워드 광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검색어 추천이 곧 구매 유도 단계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은 네이버 광고 비즈니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최근검색어 영역 개편은 단순한 UI 개선이 아니라 AI 기반 검색 혁신을 향한 단계적 진화”라며 “개인화된 탐색 경험을 구현해 이용자에게 더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검색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맞춤형 AI 블록과 숏텐츠 NOW 같은 기능을 지속 확대해 검색 서비스가 단순 기록이 아닌 새로운 정보 발견의 창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검색 서비스 전반에 AI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뉴스·쇼핑·지식인 등 개별 서비스별로 축적된 데이터를 결합해, 이용자 맞춤형 검색 경험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통신3사, ‘고객 이탈방지’ 집중… 멤버십 혜택 경쟁 치열

KT, ‘케이티 멤버십 페스타’ 혜택 강화  
SKT, 장기 우수 고객 프로그램 운영  
LG U+, ‘유평투볼’ 제휴사 대폭 확장

통신 3사가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기존 멤버십 혜택을 대폭 강화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선보이며 고객 붙잡기에 나서고 있다. 통신 3사의 마케팅 기조가 신규 가입자 유치에서 기존 가입자 이탈 방지로 이동하면서 멤버십 혜택 제공을 위한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다.

1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KT는 9월 가을 시즌을 맞아 멤버십 고객을 위한 ‘케이티 멤버십 페스타(케멤페)’ 혜택을 강화했다. 지난 8월 처음 선보인 케멤페는 한 달 만에 이용



모델들이 KT멤버십 9월 혜택인 영화 ‘어쩔수가 없다’ 시사회와 ‘태양의 서커스 쿠자’ 초청 이벤트를 소개하는 모습. /KT

건수가 100만 건을 돌파하며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Y위터페스티벌, ‘보야지 투 자라섬’ 초청 등 차별화된 문화 혜택과 굿네치킨 9000원, 파파존스 60% 할인 등 기존에 없던 수준의 할인 혜택이 인기를 끌었다.

KT는 올리브영, 다이소, 네이버페이, 스타벅스 무료 쿠폰 지급을 9월 말까지 연장하고, 태양의 서커스 쿠자 초청, 영화 시사회 등 문화 콘텐츠와 함께 배달의민족×호식이두마리치킨, 셀러디, 푸라닭, 매드포갈릭 등 외식 브랜드 최대 50% 할인 혜택을 준비했다.

또 8월부터 1인 가구를 위한 전용 혜택 프로그램 ‘따로 살아도 생활혜택 Plus’를 새롭게 선보이고, 가족 결합 신청을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셀프 결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로 살아도 생활혜택 Plus는 부모 등 가족과 떨어져 거주하는 고객도 가족 결합에 가입하면, 기본 통신비 할인에 더해 실질적인 생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SK텔레콤도 장기 고객 혜택을 강화했다. 지난 8월 장기 우수 고객 프로그램 ‘스페셜T’가 론칭 1년 7개월 만에 누적 참여 20만 명을 돌파했다. 10년 이상 고객 대상 공연·전시 최대 60% 할인, 에버랜드 포레스트캠프 숲강스, ICT 체험관 티움 관람, 프로농구 SK나이트 홈경기 관람 등이 대표적이다.

5년 이상 고객에게는 이용 연수만큼 데이터를 추가 지급하고, 30년 이상 고객에게는 가입 요금제와 관계없이 T멤버십 VIP 등급을 부여한다. NOLETicket과 제휴한 공연·전시 할인 이벤트도 월 평균 4000명 이상이 이용 중이다.

LG유플러스는 대표 멤버십 프로그램 ‘유평투볼’을 통해 혜택을 대폭 확장했다. 지난 8월 제휴사는 올해 최대 9

모인 52개로 확대됐으며, 여름 휴가철에 맞춰 테마파크·체험형 혜택을 강화했다. 오션월드, 부산롯데월드, 서울랜드, 아쿠아필드, 아일랜드캐슬, 뽀로로파크, 원더파크 등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제휴처에서 최대 66%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생활 밀착형 혜택도 눈에 띈다. 배달의민족×자담치킨, 파파존스, 다운타운, 오투기물, 베어유 온라인 강의, 메디코치 헬스케어 서비스 등 음식·쇼핑·교육까지 아우르는 다채로운 제휴가 추가됐다. 특히 구글 AI 프로 3개월 이용권 제공 이벤트는 디지털 구독 서비스와 연계한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다.

통신 3사의 전략이 신규 가입자 유치 경쟁보다는 기존 고객 이탈 방지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5G가 보편화하면서 신규 가입자 유치를 통한 대대적인 매출 수확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서현 기자 seoh@

## KT 지니뮤직, 대화형 AI 음악서비스 공개

‘AIDJ’ 베타버전… 맞춤형 음악 추천

KT 지니뮤직이 음악 플랫폼 ‘지니’를 전면 개편한 ‘지니 6.0’을 출시하고, 국내 음악 플랫폼 최초로 대화형 인공지능(AI) 음악 서비스 ‘AIDJ’ 베타 버전을 1일 공개했다.

AIDJ는 이용자가 상황·감정·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AI와 대화를 통해 추천받고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다. KT 지니뮤직의 자체 멀티에이전트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애저’ 오픈AI 기반 LLM을 결합해 구현했으며, 음악 큐레이션에 활용된 음원 분석 및 추천 기술은 현재 특허 출원 중이다.

이용자는 AI DJ와 대화하며 ‘좋아

요·싫어요’ 반응을 주거나, 원하는 플레이리스트를 담아 감상할 수 있다. 텍스트와 음성은 물론 이미지 기반 대화까지 지원해, 이용자가 업로드한 사진 분위기에 맞는 음악도 추천한다. 현재는 1인당 하루 20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지니 6.0은 AI DJ 외에도 ▲대형 화면의 쇼츠 영상 서비스 ‘지니 핫픽’ ▲개인 감상 이력을 기반으로 한 ‘공연 추천 서비스’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출시 기념 이벤트 ‘AI DJ와 챗런지’도 7일까지 진행된다. 지니 앱에서 AI DJ가 추천하는 플레이리스트를 체점한 뒤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에어팟 프로·애플워치 SE·네이버페이·스타벅스 음료 쿠폰 등이 제공된다. /김서현 기자

## 위메이드, 두바이 법인 청산… 중동사업 재편

‘위믹스 메나’ 중심 전략 재정비

위메이드가 두바이 법인 ‘위믹스 테크놀로지(DIFC)’를 청산하고 중동 사업을 재편한다.

위메이드는 최근 두바이에 설립했던 위믹스테크놀로지(DIFC) 법인을 청산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법인은 위믹스 PTE, LTD.의 자회사로, 현지 가상자산 및 웹3사업 진출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회사의 중동 진출을 이끌던 허석준 전 부사장과 김재영 전 중동 지사장도 회사를 떠난 상태다. 위메이드는 앞서 두바이 상공회의소와 협력하고 DIFC 이노베이션 허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위믹스 플레이 센터’ 설립과 1억 달러 규모의 웹3 펀드를 추진했으나 성과 부진으로 사업 구조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중동 사업은 2023년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ADGM)에 설립된 ‘위믹스 메나’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위메이드는 DIFC와의 협력 사업을 포함해 중동 지역 전체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중동 정부의 게임 산업 육성 기조에 맞춰 사업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있다”며 “위믹스 메나를 중심으로 현지 맞춤형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안 23.7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반영된 총 23조7000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025년 추경예산(21조원) 대비 12.9%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이다.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은 11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6% 늘어나, 정부 총 R&D 예산의 약 33.4%를 차지한다.

정부 총 AI 예산(10.1조원) 중 과기정통부 몫은 5.1조원으로, AI 대전환(4.5조원)과 AI 기반 과학기술 혁신(0.6조원)에 집중된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저성장·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복합위기를 돌파하고 혁신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김서현 기자



# 전 세계적 ‘피지컬 AI’에 핵심투자… 국내 주가는 ‘미지근’

젠슨 황, 시장규모 50조 달러 전망  
韓 정부, 5년 내 로봇 3대강국 목표  
내년 R&D 예산 35.3조 규모 확정  
삼성·LG도 국내외 로봇기업 인수

# 지난 4월 NH아문디자산운용은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HANARO 글로벌피지컬AI액티브'를 이날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했다. 'HANARO 글로벌피지컬AI액티브'는 전 세계 유수의 피지컬 AI 기업 25곳에 투자한다. 김승철NH아문디운용ETF투자본부장은 "피지컬AI는 기존 AI를 뛰어넘어 센서,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다양한 기기와 자율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지능형 시스템"이라며 "AI 발전의 종착역"이라고 강조했다.

# 같은 달 서울 대치동 소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공간에 국내 로봇 관련 스타트업 및 상장사 7곳과 한국산업은행·신한은행·삼성·현대차 등 27개 기관·기업 관계자들이 모였다. 2조원이 넘는 자산을 운용하는 벤처캐피털(VC)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에서 주요 로봇 기업들과 로봇 산업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LP)들을 연결해주기 위해 개최한 네트워킹 행사였다.



ChatGPT가 생성한 '피지컬 AI' 이미지.

'피지컬 AI(운동 지능)' 기술에 집중하는 로봇 기업들이 미래 핵심 투자처로 떠올랐다. 피지컬 AI는 AI 기술이 고도되자 이를 로봇 같은 물리적 장치와 연동시킨 시스템을 말한다. 하지만 국내 피지컬 AI기업들 주가는 미지근한 흐름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피지컬 AI가 새 테마로 떠올랐지만, 'AI 캐즘(Chasm·일시적 수

요 정체)론'도 있는 만큼 투자에 신중할 것을 당부한다.

## ◆피지컬 AI산업 '퀀텀 점프'

피지컬 AI 시장은 전쟁터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올해 초 CES 2025 기조연설에서 피지컬 AI를 50조 달러(6경9355조원) 규모의 산업으로 전망하며 특히 로봇을 미래 핵심전략으로 제시했다.

우리 정부도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5년 내 휴머노이드 로봇 3대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제조역량을 활용한 피지컬 AI 선도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생활 전반에 AI를 도입하겠다"며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6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확정했고 AI 분야에 올해(3조3000억원)의 3배가 넘는 10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피지컬 AI는 우리 생활과 산업현장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테슬라는 9월 중에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활용한 '로보택시'를 정식 서비스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자회사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이르면 10월부터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투입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선 최근 로봇 기술에 대한 투자가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주요 대기업들도 각각 레인보우로보틱스와 베어로보틱스 같은 국내외 로봇 기업을 인수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상장하는 국내 로봇 기업도 급격히 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년 국내 증시에 상장한 로봇 기업 수는 1곳 정도에 그쳤지만, 작년에는 엔젤로보틱스·케이엔알시스템·하이젠알앤엠·씨메스·클로봇·티엑스알로보틱스·피엔에스미캐닉스 등 무려 7개 로봇 기업이 상장했다.

## ◆정부 10조 투자가 주가 동력 될까

피지컬 AI시장은 뜨겁지만, 국내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는 차갑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피지컬 AI 대장주인 마음AI는 8월 한 달간 10%가량 하락했다. 같은 기간 유니켄스트는 5900원~6200원대 박스권에서 등락했다. 유니켄스트는 엔비디아의 파트너사다.

다른 로봇기업들 주가도 마찬가지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8월 한 달간 -1.26% 수익률을 기록했다. 유일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하이젠알앤엠 등 주요 종목들도 미지근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시장을 주도하는 다른 국가 피지컬 AI와 대비된다. AI 기반 스마트팩토리를 앞세운 일본의 전기·전자 기업 미쓰비시일렉은 8월 들어 12% 넘게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물류 자동화 기업 다이후쿠도 최근 3주간 18% 가까이 급등하며 신기록을 새로 썼다. 미국 테슬라는 로보택시 서비스 기대감으로 8월 한 달간 8.30% 뛰었다.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AI 투자 확대 정책에 기대를 건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역대 최대 R&D 예산의 핵심이 AI라는 점은 이번 정부가 어디에 중심을 두는지 확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며 "국내 주식시장의 모멘텀이 AI로 옮겨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연말까지 주식시장을 움직일 동력 중 하나는 AI 밸류체인에서 파생되는 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최건우 기자 geon@metroseoul.co.kr

## 미래에셋증권, 업계최초 연금자산 50조 기록

퇴직연금 34조, 개인연금 16조 돌파  
7월 말 납입원금 대비 평가차익 8.4조

미래에셋증권이 업계 최초로 연금자산 50조원을 돌파했다.

1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퇴직연금 34조 원(확정급여형·DC 14조원, 개인형퇴직연금·IRP 14조원, 확정급여형·DB6조원), 개인연금 16조원을 기록하며 총 연금자산 5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7월 말 기준 납입원금 대비 평가차익은 8조4000억원에 달했다.

회사 측은 이번 성과의 배경으로 글로벌 우량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전략과 꾸준한 고객 유입을 꼽았다. IRP 1년 수익률은 12.48%로 은행·증권·보험 전 업권에

서 1위를 기록했으며, 5년 수익률 역시 5.66%로 증권업계 선두에 올랐다. DC 1년 수익률도 12.17%를 기록하며 증권사 가운데 가장 높은 성과를 냈다.

고객 증가세도 뚜렷하다.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공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상반기 퇴직연금(DB·DC·IRP) 적립금 증가액에서 업권 전체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DC·IRP 적립금은 3조4206억원 늘어나 전체 사업자 증가액의 16.4%를 차지했다. 적립금이 3조원 넘게 늘어난 사업자는 미래에셋증권이 유일하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에셋증권은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3년 연속(2022~2024년) 우수사업자로 선정되며 운용 전문성과 시스템 안정성을 입증했다.

아울러 연금 인출기 시장 대응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자산관리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퇴직연금 상장지수펀드(ETF) 적립식 매수, 모바일 원스톱 연금개시, 퇴직연금 장래채권 매매 서비스, 세액 공제 현황 조회 등 고객 친화 기능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정효영 미래에셋증권 연금컨설팅본부장은 "연금자산 50조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고객이 미래에셋증권에 보내신 신뢰의 크기"라며 "앞으로도 평안한 노후를 위한 책임감을 갖고 수익률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공모펀드 판매잔고 사상 첫 300조 돌파

금투협, 올해 67.5조 증가

공모펀드 판매잔고가 큰 폭으로 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융투자협회는 공모펀드의 판매잔고가 지난 7월말 기준으로 300조 5039억원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판매잔고는 올 한 해 동안 67조 5000억원 증가해 2024년말 약 233조원 대비 29.0%가량 늘었다. 펀드 유형별로는 단기금융펀드(MMF)가 약 166조 9000억원으로 전체 공모펀드 판매잔고의 55.5%를 차지했으며 채권형펀드(50조 4000억원)와 주식형펀드(28조원)가 그

뒤를 이었다.

공모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별로는 증권사가 약 195조 4000억원을 기록해 판매잔고의 65.0%를 차지했다. 은행은 93조 8000억원(31.3%), 보험사는 3조 9000억원(1.3%)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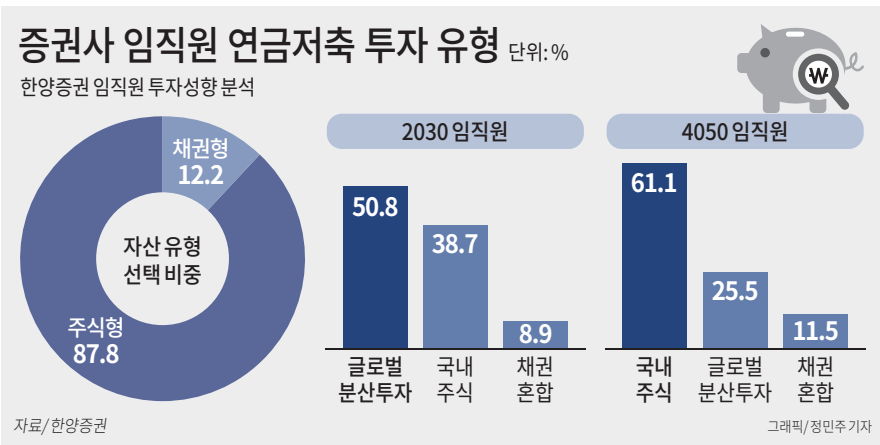
고객유형별로는 금융기관 법인이 퇴직연금, 법인MMF 등의 영향으로 약 166조 6000억원을 기록해 가장 많은 비중(55.4%)을 차지했다. 개인 78조 7000억원(26.2%), 일반법인 55조 2000억원(18.4%) 순으로 집계됐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MMF가 약 19조

8000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25.1%)을 차지했으나 주식형펀드도 이와 비슷한 규모인 19조 5000억원(24.8%)으로 나타났다. 사모펀드 판매잔고(692조 7409억원)를 포함한 전체 판매잔고는 993조 2448억원을 기록했다. 공모펀드 계좌수는 약 3571만개로 사모펀드(약 9만개) 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그 규모는 매월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한편, 상장지수펀드(ETF) 등 상장펀드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펀드시장 규모는 지난 7월말 순자산총액(NAV) 기준으로 약 1290조원(공모펀드 569조원, 사모펀드 721조원)을 기록했다.

/최건우 기자



## 증권사 임직원 88%, 연금저축 공격적 투자

한양증권, 투자성향 분석

‘KCGI코리아증권투자신탁1호’

전체 투자자의 44% 차지

국내 증권사 임직원 10명 중 9명은 공격적인 연금저축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양증권이 지난 8월 도입한 연금저축펀드 매칭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임직원들의 투자 성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주식 중심 주식형 펀드 ‘KCGI코리아증권투자신탁1호’가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이어 글로벌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KCGI샬러리맨증권투자신탁’이 37%로 뒤를 이었다. 국채 및 우량 회사채 위주의 채권혼합형 펀드 ‘KCGI코리아증권투자신탁’은 10%, 국내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KCGI코리아스몰캡증권투자신탁’은 7%, 은퇴자에 맞춘 채권혼합 재간접형 펀드 ‘KCGI디딤프리덤평생소득TIF증권투자신탁’은 2%를 기록했다.

종합하면 펀드 가입 임직원의 88%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형 자산에 투자한 셈이다.

매칭 프로그램은 한양증권 임직원이 선택한 연금저축펀드에 대해 회사가 동일 금액(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KCGI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다섯 개 펀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주식형은 위험 자산에 속하지만, 연금이 장기 투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선택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대별 연금 투자 성향도 극명하게 갈렸다. 2030세대 임직원의 51%는 글로벌 주식형 펀드를 선택하며 해외 시장에 대한 관심과 분산 투자 전략을 선호한 반면, 4050세대는 국내 주식형 펀드를 선택한 비율이 61%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한양증권 관계자는 “4050세대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국내 주식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했고, 2030세대는 미국 등 글로벌 시장의 구조적 성장성과 리스크 분산 효과를 더 크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확인됐다. 남성 임직원은 국내 주식형 펀드를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여성 임직원은 국내와 글로벌에 대한 선택 비율이 거의 비슷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산업부 중점 분야별 예산〉

| 2025년 예산                        | 2026년 예산          |                |
|---------------------------------|-------------------|----------------|
| <b>산업 전반의 AX 확산</b>             | 5651억 → 1조1347억   |                |
|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개발(R&D)        | 1851억원            | ★              |
|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 1575억원            |                |
| <b>첨단 및 주력산업 육성</b>             | 1조3026억 → 1조6458억 |                |
| 반도체                             | 4685억             | 이차전지 804억      |
| 바이오                             | 3493억             | 디스플레이 776억     |
| 조선                              | 2302억             |                |
| <b>재생e 중심 에너지 대전환</b>           | 8973억 → 1조2703억   |                |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 6480억원            |                |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 2021억원            |                |
| ※ 원전 예산은 5194억원 (전년 대비 6.2% 증액) |                   | 자료: 기획재정부 /뉴시스 |

# 내년 예산 13.8조 역대 최대 규모 AI·반도체·재생에너지 집중 투자

제조업 혁신 위한 AX 투자 확대  
반도체·디스플레이 경쟁력 제고  
재생에너지·분산전력망 투자 강화  
무역보험·바우처로 기업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가 2026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8778억원으로 편성했다. 2025년 본예산(11조4336억원)보다 2조4443억원(21.4%) 증가한 규모다.

산업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문신학 사업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는 인구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미국 관세조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며 “이번 예산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관행적·중복 사업을 정비해 절감한 재원을 ▲산업 전반의 AX(Advanced Transformation) 확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통상·수출 대응력 강화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제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AX 예산을 올해 5651억원에서 내년 1조1347억원으로 두 배(100.8%) 확대했다. 자율제조 AI 팩토리 2030년까지 500개 구축해 생산성 30% 향상, 제조비용 20% 절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AI 팩토리화 산업 AI 솔루션 외에도 휴머노이드 로봇,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응용제품 상용화 예산이 신규로 포함됐다.

반도체 예산은 올해 2323억원에서 4685억원으로 101.7% 늘었다. 반도체 양산 팹과 동일한 환경에서 성능을 검증하는 ‘미니팹 기반구축’(1157억원),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개발(392억원)에 집중된다. 디스플레이 분야도 380억원에서 776억원으로 104.3% 증액됐다. 배터리·조선 등 주력산업 전반의 R&D 지원도 강화된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예산은 올해 8973억원에서 내년 1조2703억원으로 41.6% 늘린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은 648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했고, 보급지원도 2021억원으로 증액됐다. 아울러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1196억원)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100억원) 등 신규 사업이 추진된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 고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수출 예산도 올해 1조340억원에서 내년 1조7353억원으로 67.8% 늘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은 800억원에서 6005억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긴급 바우처(424억원) 신설을 통해 관세 충격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의 물류비·생산거점 이전을 지원한다.

문 차관은 무보 급금과 관련해 대미 관세협상 3500억달러 규모 투자펀드 조성 관련이 있으나 구체적인 투자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노란봉투법 기대·우려 안해 산재 사망 감축에 직 걸겠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취임 한달

주요 기업의 원하청 관계 진단  
교섭 표준모델·시물레이션 등  
상생 교섭 촉진 방안 마련할 것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정책과 산업안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큰 기대나 우려를 하지 않는다”며 “6개월 준비기간 동안 노사와 협력해 구체적 지침을 마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재해 감축과 관련해서도 “직을 걸겠다는 말은 즉흥적인 수사가 아니다. 주무장관인 제가 산재 사망 감축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를 언급하며 “노사가 대립을 넘어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면서도 “법 하나로 노동시장 격차를 해결할 수는 없다. 노사정이 협력해야 성장과 격차 해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6개월 준비기간 동안 업종·지역별 주요 기업의 원하청 관계를 진단하고, 교섭 표준모델과 시물레이션 등 상생 교섭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내달 1일부터는 일반감독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되면 지정 기회를 주지 않고 즉시 사법조치한다. 김 장관은 “근로자가 일터에서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산업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이며, 공공부문부터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사고 사망자 수의 비율)을 2023년 기준 0.39에서 2030년까지 0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ECD 평균 수준인 0.2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장관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것보다 ‘사람의 목숨이 귀하다는 보편적 진리’를 사회에 확산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도 “임금체불은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며 “상습적·악의적 체불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고, 구조적 산업 문제를 개선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상습 체불사업주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에서 제외되며,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사회적 대화와 정년연장 관련해서는 민주노총의 참여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정년연장 TF에는 참여하고 있다”며 “노사 합의가 쉽지 않더라도 대화 효능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노동부의 공식 약칭은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변경됐다. 김 장관은 “고용되지 않은 시민, 사용자 없는 노동자, 자영업자 모두 ‘노동’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약칭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농협, ‘5조 달성’ 공판사업 판로발굴·사업확대 논의

전국농협공판장운영협의회 워크숍  
산지 발굴 등 유통변화 선제 대응

농협경제지주가 전국단위 워크숍을 개최하고, 농산물의 판로 발굴 및 온라인 도매시장 사업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일 농협에 따르면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제주에서 ‘2025년 전국농협공판장운영협의회 워크숍’이 열렸다. 행사에는 산지도매 본부장, 협의회참여 농협 조합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요 사업 부문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골자는 ▲농산물 유통트렌드 및 공판사업 추진 방향 논의 ▲농협공판장 운영현황 및 당면현안 공유 ▲제주 남원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산지출하 현황 조사 등이다.

농협경제지주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판장 신규산지를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온라인 도매시장 사업을 확대하는 등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유통환경 변화에 선



농협 관계자들이 지난달 하순 제주에서 열린 ‘2025년 전국농협공판장운영협의회 워크숍’에 참석해 있다. /농협중앙회

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행사에서 김주양 산지도매본부장은 “농협공판장은 농업인의 든든한 판로이자 국민의 건강한 식탁을 지키는 공익적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업인의 팍과 정성이 제값을 받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농협공판장운영협의회는 농협공판장의 사업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1996년 출범했다. 공판사업을 추진 중인 63개 농협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농협 농산물공판장의 연간 취급액이 역대 처음으로 5조원대(5조3531억 원)에 진입했다. 공판사업은 농협의 대표 판매사업 중 하나로 기관 정체성의 근간으로 평가받는다.

농협농산물공판장은 1990년 매출액 1조원을 달성한 이래로 2001년 2조원, 2010년 3조원, 2018년 4조원을 넘어섰다. 농협 측은 이후 6년 만에 5조원대를 기록한 배경으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참여를 통한 공판사업 다각화 등을 꼽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내년 농식품 예산 사상 첫 20조 넘겨

농업 세대전환 촉진 등에 9.3조  
기후대처·AI 스마트농업 등 투입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후변화 대응 및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농업 확산 등을 위해 20조원대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농식품부는 2026년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6.9% 늘어난 20조350억원을 책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해당 부처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예산 증가율도 2020년의 7.6% 이후 가장 높다.

주요 투자로 ▲식량안보 및 유통구조 혁신, 국민 먹거리 돌봄강화에 5조3492억원 ▲농가소득·경영안정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및 농업 세대전환 촉진에 9조3712억원을 쓸 예정이다.

또 ▲AI 기반의 농업 스마트화, K푸드+ 수출 확대 등 농식품산업 성장 뒷받침에 1조8955억원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에 1조6990억원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에 493억원을 투입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전체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이 있어 농식품부도 충실히 사업을 조정하고 실제 집행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내실 있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쌀 수급 안정,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을 올해 2440억원에서 4196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지원면적은 20만5000헥타르(ha)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는 하계조사료·옥수수·깨는 ha당 50만 원 늘린다.

또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산지 직매송, 마케팅 등 맞춤형 바우처를 186억원 규모로 신규 지원하고 출하·정산자금 지원도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청년농의 안정적 농지 확보 뒷받침에도 나선다.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을 4200ha로 확대하고 1조6170억원을 투입한다. 청년농이 창업 초기 희망 농지를 임차하고 향후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방식의 농지도 200ha를 공급해 예산도 193억원에서 770억원으로 늘어난다.

/세종=김연세 기자



DAEGU  
BUSAN  
SEOUL  
갤러리 교류전

2025  
9.2-10.30

도시를 넘어  
세계로  
...

참여작가

대구 : 김명숙 | 박두봉 | 오승아 | 이정애  
부산 : 강인주 | 최미옥 | 김도희 | 김영아  
서울 : 박영대 | 윤길영 | 신은영 | 최은경

· 주관 **소르소** · 후원

전시일정

DAEGU 9.02-9.07 대백프라자갤러리  
BUSAN 9.24-9.30 부산 아트갤러리아람  
SEOUL 10.24-10.30 갤러리315

※대백프라자갤러리 대구시 중구 명덕로 333 대백프라자 12층 T. 053.420.8015 ※부산아트갤러리아람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교리 237-1 T. 010.9157.9810 ※315서울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5 신안빌딩 1층 T. 02.6743.3370



# “1만개 LED캔들 빛나는 진주시 夜한 매력에 빠져볼까”

진주시, 머물고 싶은 도시 변모  
남강 별밤 피크닉 등 운영 인기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진주성’  
개막 10일 만에 12만명 방문

진주시가 야간관광 특화 콘텐츠와 첨단 기술을 접목한 문화유산 프로그램을 통해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변모하며 주목받고 있다.

남강의 자연 환경과 진주성, 유등테마공원, 축석루 등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 야간 행사와 공연·미식·체험형 야간 축제 프로그램, 그리고 숙박 할인과 지역 상품권 이벤트 등 체류유도 정책이 결합돼 지역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진주시에 따르면 시는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 선정 이후 관광 콘텐츠 개발과 여건개선, 홍보마케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올해는 남강 별밤 피크닉, 공연형 도보투어 ‘스테이지 온 JINJU’, 미식 여행 콕앤톡, 하모 나이트 미션투어, 나이트 자술랭 투어 등 다양한 야간



남강 위를 운항 중인 김시민호.

/진주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2000여명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했다. 단순 경유지에서 머물며 즐기는 체류형 관광지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진주시가 공동 주최한 ‘2025 대한민국 밤밤페스타 in 진주’에서는 1만개 LED 캔들 야간 전시와 전국 특화도시 디지털 판매 부스, 버스킹 공연이 어우러져 진주의 새로운 관광 매력을 선보이며 큰 호응을 받았다.

진주성 및 진주대첩 역사공원 일원

에서 개최 중인 ‘2025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진주성’은 전통문화와 첨단 기술이 융합된 대표 야간관광 프로그램이다. ‘법고창신, 진주성도’를 주제로 공북문, 축석루, 의암 등에서 펼쳐지는 미디어 아트 전시는 개막 10일 만에 12만 명이 방문하는 폭발적 반응을 보였다.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린 ‘2025 진주 국가유산 야행’은 ‘화력(火力) 조선, 진주성 총통의 기억’을 주제로 하며 국가유산청 공모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된 프로그램이다.

진주성도를 따라서 국립진주박물관 야간개장, 진주 예인을 만나, 성안 저잣거리의 놀이판 등 ‘8야(夜)’ 핵심 테마로 구성된 차별화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가족단위 관광객과 젊은층에게 색다른 체험기회를 제공했다.

진주의 대표 관광 아이콘인 남강 유람선 ‘김시민호’는 선상에서 전문 해설사와 함께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색 콘텐츠다. 2022년 첫 운항 이후 매년 이용객이 증가해 현재까지 8만 5000여 명이 탑승했으며 올해는 10만 명 돌파가 예상된다. 최근 진한경 유람선 ‘김시민2호’도 추가 운항을 시작해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진주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며 “관광객이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주(경남)=선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고창군-국토교통부

## 드론통합지원센터 구축 협약

고창군과 국토교통부가 고창군 성내면 조동리 일원에 조성 중인 고창(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고창군 성내면 조동리 일원에 드론통합지원센터를 건립을 공식화하고, 원활한 운영과 관리, 그리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고창(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는 총사업비 363억원이며, 대지면적 89,602㎡ 규모로 드론통합지원센터(비행시험·드론자격·드론교육), 활주로 및 실기시험장등을 구축하여, 센터를 이용하는 연간 교육인원 1,000여명, 자격시험 인원이 1만 5,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창(전북)=양수영 기자

## 상하이서 ‘마이스 로드쇼’ 부산시, 中 관광객 모신다

단체관광객 ‘한시적 무비자’ 맞춰  
관계자 100여명 참석 공격 마케팅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 시행을 계기로 대규모 마케팅에 나선다.

시는 1일부터 3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2025 부산 마이스 로드쇼’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한시적 무비자 입국 정책이 2025년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시행됨에 따라 한-중 관광교류 재개 흐름에 맞춘 공격적 마케팅이다.

상하이에서 열리는 부산마이스 유치설명회는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그간 부산은 2013년 중국 칭다오를 시작으로 베이징(2015), 광저우·선전(2016) 등 중국 주요 도시와 일본,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

국 등에서 마이스 로드쇼를 개최해 왔다.

이번 행사에는 상하이 주요 기업과 여행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다. 부산 마이스 기업과의 비즈니스 상담회와 부산 마이스 도시홍보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의 대표 호텔과 여행사 등 10개 마이스 기업이 공동 참가해 ‘글로벌 마이스 도시 부산’의 매력을 알리고 중국 시장 맞춤형 마이스 행사 유치에 주력한다. 마이스는 회의(Meetings), 포상여행(Incentives travel), 컨벤션(Conventions), 전시/이벤트(Exhibitions/Events)의 약자다.

부산대표단은 수백명 규모의 포상 단체 관광객 유치와 다국적 기업과의 신규 네트워크 창출 등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창업행사 ‘바운스 2025’ 22일 개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벡스코에서 부산 창업생태계를 대표하는 세계적 창업 행사 ‘BOUNCE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9화제를 맞는 이번 행사는 아시아 창업 엑스포 FLY ASIA 2025와 함께 개최되며 지역 신생기업과 대·중견기업, 투자사 등이 대거 참여할 전망이다.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는 학술회의, 기업투자 설명회, 일대일 간담회,

개방형 혁신, 교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올해 행사는 지역 전략 산업과의 연계를 핵심 테마로 설정했다. 부산의 미래 전략 산업인 스마트해양을 중점 조명하며 신생기업과의 협력 및 교류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처음 선보이는 스마트해양 특화부스에서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부산항만공사, 중소조선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상시 설명회가 진행된다. 해양연구개발, 기술 이전, 창업 지원 정책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29일 서울 컨스텐 호텔에서 열린 ‘경주 SMR 국가산단 투자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주 SMR 국가산단’ 투자설명회 열어

경주시, 건설전망 등 특강

경주시는 지난 29일 서울에서 ‘경주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단 투자설명회’를 열고 수도권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투자환경과 산업 비전을 소개했다.

설명회에는 송호준 경주시 부시장, 이남익 경북도 공향투자본부장을 비롯해 ▲심형진 서울대 교수(좌장) ▲황일순 서울대 명예교수 ▲정범진 경희대 교수 ▲손태영 한국수력원자

력 SMR사업기획부장 ▲권혁 한국원자력연구원 SMR원자로기술개발부장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경주 SMR 국가산단 IR 발표 ▲산업 동향 및 건설 전망 ▲지속가능 발전과 SMR ▲AI 시대와 SMR의 역할에 대한 특강으로 구성됐다. 패널토론에서는 K-SMR 상용화, 경제성 확보,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 정읍 ‘내장산’ 관광AI 실증사업 선정

교통·주차난 등 과제 해결

정읍시는 내장산국립공원이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5 관광AI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 실증지로 최종 선정되며, 관광 교통과 주차난 등 오랜 과제를 AI 기술로 해결하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내장산국립공원 스마트관광 실증을 추진한다. 사업비는 관광공사가 집행하고, 시는 행정과 현장 지원을 맡는다. 관광공사가 실증기업을

직접 선정하고, 선정 기업이 AI 솔루션 개발과 운영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시는 관광공사·실증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내장산에 도입될 AI 서비스는 교통 혼잡, 관광객 동선, 안전 분석과 언어 불편 등의 5대 문제를 해결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관광객 맞춤형 서비스와 안전 강화, 외국인 편의 증진을 동시에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전북)=양수영 기자 ysn6313@

경주시

## 경주페이 캐시백 지급률 상향

경주시는 지역 화폐 ‘경주페이’의 월 캐시백 지급률을 기존 7%에서 13%로 상향해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반영되면서 국비 지원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주페이 사용자가 월 한도 70만 원을 모두 이용하면 최대 9만1,000원을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경주페이는 선불 충전식 카드형 지역 상품권으로,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8월 말 기준 누적발행액은 1,006억 원, 사용액은 999억 원이며, 카드 등록수는 21만290장, 가맹점은 1만6,045곳에 달한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경남도교육청

## BTL 학교 124곳 인수인계 착수

경남도교육청이 2027년부터 차례대로 임대 운영 기간이 끝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학교 124개교의 인수인계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BTL 방식은 민간이 학교 등 교육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교육청에 이전(Transfer)하고, 일정 기간 임대(Lease) 형식으로 운영하는 민간 투자 방식이다.

경남교육청은 학교 시설의 공공성 회복과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체계적인 전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인수인계는 단순한 운영 마무리가 아닌 앞으로 운영 방식 결정과 장기적 시설 관리 체계 확립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이도식 기자



# 유튜버 슈카, ‘990원 빵’ 출시에 정당한 가격 vs 지속판매 불가능

&lt;소비자&gt;

&lt;업계&gt;

## ‘ETF 베이커리’ 팝업 논란

구독자 360만 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버 ‘슈카’ (전석재)가 990원짜리 빵을 선보이면서 베이커리 시장의 가격 논란을 촉발했다. 소비자는 환호하지만 업계는 원가와 비용 구조상 지속 불가능한 가격이라며 반발, 빵값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슈카는 지난달 30일 서울 성수동에 베이커리 팝업스토어 ‘ETF 베이커리’를 열고 소금빵과 베이글, 바게트 등 총 35종의 빵과 케이크를 시중 절반 이하 가격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받아온 국내 빵값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린 것이다.

소금빵을 990원에 판매한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은 즉각 열광했다. 일반적인 동네 빵집에서 판매되는 소금빵의 가격은 2000원~3000원 수준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그동안 비싸게 사먹은 기분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싼 가격이 왜 욕을 먹느냐”며 기존 업계 비판에 맞서기도 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식빵(500g) 가격을 해외와 비교하면 평균 3.06달러(약 4200원)로, 미국(3.64달러)보다는 저렴하지만 일본(1.2달러·약 1600원), 프랑스(1.19유로·약 193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의 반응과는 상반되게 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소금빵 원가가 이미 1000원 가까이 된다. 하루 수천 개씩 팔아도 990원은 불가능하다. 잠깐 운영하는 팝업스토어이기 때문에 가능한 가격이다”라는 불만이 이어졌다. “폭리를 취했다는 인식이 퍼질까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제과제빵업은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아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



Chat GPT로 생성한 수도권 지하철역에 들어선 소규모 제빵 매장에서 빵을 구매하는 소비자들 이미지.

## 소금빵·베이글 등 35종 빵 판매 소비자들 “싼 가격이 왜 욕먹냐”

## 업계 “소금빵 원가 이미 1000원 하루 수천개 팔아도 990원 불가능”

크가 크고, 치킨·커피 전문점보다 인력 수요가 훨씬 많다. 업계 관계자는 “원재료비뿐 아니라 인건비, 유통비, 매장 운영비까지 감안해야 한다.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는 본사의 브랜드 파워와 안정적인 공급망을 기반으로 대량 구매를 통해 원재료 단가를 낮출 수 있지만, 본사 로열티와 가맹비, 인테리어 비용이 최종 가격에 반영되며, 본사 마진까지 더해져 판매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 최근 늘어난 동네 개인 베이커리는 소규모 운영 탓에 대량 구매가 어렵고, 상대적으로 원재료 단가가 높다. 상권에 따라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도 적지 않다.

이와 반대로 지하철 역사 안에 자리 잡은 빵집은 상황이 다르다. 수도권 지

하철역에 들어선 소규모 제빵 매장들은 수년 전부터 1000원~1500원대 빵을 꾸준히 판매해왔다. 화려한 인테리어나 고급 케이크 라인업은 없지만, 소시지빵·단팥빵·슈크림빵 같은 기본 메뉴로 ‘싸고 배부른 빵집’ 이미지를 굳혔다. 낮은 임대료, 단순화된 제품 구성, 빠른 회전율 덕분에 가능한 가격이다.

전문가들은 “빵집마다 고정비와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며 “소비자는 단순히 가격뿐 아니라 브랜드 신뢰, 제품 다양성, 접근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한다”고 말했다.

이번 ‘슈카 빵’ 논란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한국 베이커리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원재료 수입 의존도와 높은 인건비, 프랜차이즈 중심 유통 구조가 맞물리며 가격 거품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소비자는 ‘정당한 가격’을 요구하고 업계는 ‘지속 가능한 운영’을 호소한다. 지하철 빵집이 오래 전부터 증명해온 초저가 모델과 슈카의 도발적인 실험이 향후 제과제빵 시장에 어떤 파장을 남길지 관심이 쏠린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CJ제일제당, 매운맛 ‘습파김치’ 출시

습김치·습차김치 누적 10만개 판매

CJ제일제당이 매운맛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습김치’에 이어 ‘습파김치’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습 실비김치’의 라인업 확대를 통해 MZ세대를 중심으로 ‘매운맛 트렌드’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습파김치’는 파의 알싸한 맛에 매운 베트남 고춧가루와 국내산 청양 고춧가루의 최적 배합으로 더욱 강렬하고 화끈한 맛을 낸다. 단순히 맵기만 한 것이 아니라 풍부한 양념에 파의 풍미와 비비고 김치에 사용되는 액젓 4종이 어우러져 더 감칠맛 있고 입맛을 돋우는 것이 특징이다. 파는 먹기 좋은 크기의 통파를 사용해 아삭하게 즐길 수 있고, 돌돌 말아 면이나 고기 요리와 함께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습파김치’ 제품에 대한 소비자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실비 파김치 특유

의 풍미에 강렬한 매운맛이 맛있게 맵다’, ‘감칠맛과 단맛의 조화로 중독적이다’, ‘패키지 디자인이 귀엽고 강렬하다’, ‘면이나 고기에 돌돌 말아서 먹으면 최상의 꿀조합’ 등 맛, 패키지, 디자인, 취식 행태 등 다양하다.

판매도 순항 중이다. ‘습파김치’ 출시 후 4주간 판매량은 ‘습김치’ 초반 판매량에 육박하며 소비자 관심을 받고 있다. ‘습김치’와 ‘습파김치’를 합한 누적 판매량은 지난달 기준 10만개를 돌파하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습 실비김치’에 이은 ‘습 실비파김치’의 출시, 소비자의 뜨거운 반응과 바이럴 등은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유통 채널 등 디지털 환경과 MZ세대에 맞춘 전략이 통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환경과 MZ세대 등 핵심 타깃층에 맞춘 제품 기획과 마케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더현대 글로벌 일본 팝업 현장.

/현대백화점

## 日 패션쇼에 ‘더현대 글로벌 스테이지’

현대百貨, 6일 ‘도쿄걸즈컬렉션’ 참여

현대백화점이 이달 6일 일본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열리는 TGC(도쿄 걸즈컬렉션)에 참여해 K-패션 특집 무대인 ‘더현대 글로벌 스테이지’를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

2005년 시작한 TGC 런웨이에서 한국 토종 브랜드를 모아 K패션을 주제로 하는 특집 무대를 선보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TGC는 일반적인 패션쇼와 달리 아티스트 그룹을 비롯한 글로벌 아티스트의 공연 등이 접목된 엔터테인먼트 결합형 패션쇼로, 일본 1020세대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패션 페스타로 평가된다. 현장 관객만 2만명, 온라인 생중계 시청자는 500만명에 달한다.

더현대 글로벌 스테이지는 TGC 주

최사인 더블유 도쿄(W TOKYO) 측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현대백화점은 더현대 글로벌 스테이지에 오를 브랜드 선정은 물론, 전반적인 무대 기획 및 연출을 총괄한다. 더현대 글로벌 스테이지 런웨이에는 트리밍버드·레스트앤레크레이션·더바넷·오헤시오 등 4개 브랜드가 등장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TGC 주관사인 W TOKYO와 협업하는 최초의 한국 리테일 기업으로서 이번 패션쇼 무대를 발판 삼아 K패션 브랜드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단기적인 이벤트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으로 현지 고객락인(Lock-in)에 성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지원을 펼쳐 K패션의 지속적인 글로벌 확산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 와인 ‘카르멘’과 함께하는 소개팅 진행

롯데칠성음료 ‘무비플러팅’  
노블레스 수현 홈페이지 참가 접수  
오는 26일 오후 2시 소개팅 예정

롯데칠성음료가 수입·판매하는 칠레 와인 브랜드 ‘카르멘’이 롯데컬처웍스,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수현’과 함께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소개팅 프로그램 ‘무비플러팅’을 진행한다.

작년 4월에 첫 선을 보인 후 14회를 맞이하는 ‘무비플러팅’은 롯데컬처웍스와 노블레스 수현이 함께 기획한 커플 매칭 프로그램으로 영화 관람 후 단체 미팅을 통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각자의 취향에 맞는 짝을 찾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무비플러팅’은 노블레스 수현의 커플 매칭 노하우가 더해진 미혼남녀의 만남 이벤트로 지난 13회 동안 ‘무비플러팅’의 평균 커플 성사율은 약 52%에 이를만큼 커플 매칭 비율이 높다.



카르멘 무비플러팅



/롯데칠성음료

특히 이번 무비플러팅에는 단체 미팅과 함께 ‘카르멘 그란 리세르바 까버네소비뇽’, ‘카르멘 그란 리세르바 프리다칼로 에디션’을 시음하며, 취향에 맞는 와인 카드를 선택하는 과정이 추가된다. 이후 선호와인 등 취향이 비슷한 참가자들끼리 추가 대화를 통해 커플이 될지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와인 ‘카르멘’과 함께 하는 이번 무비플러팅은 9월 26일 오후 2시부터 ‘롯데 시네마 월드타워 샤토 데 라운지’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참가 희망자는 ‘노블레스 수현’의 홈페이지를 통해 9월 19일까지 접수할 수 있고 참가비는 3만 원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에서 와이너리 이름을 따와 ‘아내의 와인’으로 유명한 ‘카르멘’이 무비플러팅을 통해 새롭게 커플이 되고자 하는 모든 청춘 남녀를 응원한다”며 “이번 ‘무비플러팅’에 선보이는 카르멘 2종은 스테이크 등의 육류 요리와 잘 어울려 데이트와 인으로 손색없는 데다 롯데 유통사 전용으로 선보인 ‘프리다칼로 에디션’은 멕시코의 화가 ‘프리다칼로’의 작품이 제품 라벨에 포함되어 특색 있는 선물용 와인으로도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 이마트24-롯데웰푸드 ‘찰옥수수주’ 선포

스테디셀러 아이스크림 3종 재해석

이마트24가 롯데웰푸드와 협업해 스테디셀러 아이스크림 3종을 과자와 전통주로 재해석한 제품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이마트24는 지난달 28일 ‘뽕빠레 소프트스낵 초코유유맛’ ‘롯데샌드 설레임맛’을 선보인 데 이어 이달 4일부터는 ‘찰옥수수주’를 내세운다.

이들 상품은 롯데웰푸드의 스테디셀러 상품을 떠올릴 수 있도록 맛은 물론이고, 패키지 특유의 색상과 이미지를 전면 디자인해 친숙도를 높였다.

이마트24는 상품 출시를 기념해 9월 한달 간 지난해 선보인 ‘뽕빠레 소프트스낵 바닐라유유맛’, ‘셀렉션 파르페’를 포함한 롯데웰푸드 IP 차별화 상품 5종에 대해 행사카드로 결제 시 30% 할인한다.

/손종욱 기자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5일 ‘레드-그린 바이오 융합 심포지엄’

# 오가노이드 활용 신약 성과 공유… 바이오 혁신 앞장선다

바이오 분야 지·산·학 협력 확대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현황 발표  
“전북도 중심 산업 생태계 확장”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전북특별자치도, 원광대학교와 함께 바이오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지·산·학 협력을 본격화 한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오는 25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원광대학교 프라운컨퍼런스홀에서 ‘레드-그린 바이오 융합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원광대학교 글로벌사업 1주년과 오가노이드사이언스 RGB연구소 개소 1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원광대학교가 함께 하는 지·산·학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혁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하는 학술 교류를 통해 응용생명과학 분야의 발전과 글로벌 사업 모델의 수렴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질적인 공동연구를 기획할 수 있도록 도모할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와 정현율 익산시장이 축사를 통해 지역과 대학, 기업이 함께하는 바이오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유종만 대표가 지역과 글로벌을 잇는 바이오 혁신의 비전을 강조하며 환영사를 전한

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들도 참석해 국내 바이오 정책 방향과 지역 발전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학술 세션에서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최고기술책임자(CTO) 이경진 상무가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신약개발 및 재생치료제 개발 현황과 비전’의 주제로 그동안의 성과와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진다.

도쿄의치과대학 류이치 오키모토 교수는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개발 현황’을 발표하고, UC 버클리 조명제 교수는 ‘유전자 교정을 활용한 친환경 농작물 개발’의 최신 성과를 소개한다. 이어 비동물실험 지원 비영리단체인 애니멀프리이니셔티브(AFI)의 유성지 대표는 ‘동물이 아닌 과학으로 증명하다’라는 주제로 동물실험 없는 미래의 글로벌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소장과 최민이 KAIST 교수, 한남식 캄브리지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해 레드바이오(의료·헬스케어)와

그린바이오(농업·식품) 분야의 융합가능성을 모색한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은 전북도를 중심으로 의료와 농업을 아우르는 레드-그린 바이오 융합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원광대학교 글로벌 사업의 그 동안의 성과를 확인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글로벌 바이오 허브 구축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지역 특화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글로벌 사업이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원광대학교는 교육부 생명산업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글로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전북도를 중심의 바이오산업 생태계 확장과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 제시를 목표로 한다”며 “전북도가 주도하는 지·산·학 협력의 실질적 성과와 미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ellee@metroseoul.co.kr

## GC녹십자 ‘WHO GMP’ 서면 심사

GC녹십자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실시하는 의약품 우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현장 실사를 서면으로 대체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실사는 품질인증(PQ) 제품에 대해 3년마다 실시되는 정기 심사로, GC녹십자는 독감백신 ‘지씨플루’와 수두백신 ‘베리셀라’에 대한 GMP 적합성 검증을 받는다.

국내 제약사가 WHO GMP 실사를 서면 심사로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GC녹십자는 실질적으로 시간, 비용 등을 절감하며 ‘메이드 인 코리아’ 의약품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 HLB제약 뮤코다당단백 콘드로이친+누적 판매량 40만개 돌파

HLB제약은 관절 전문 브랜드 관첵에서 ‘뮤코다당단백 콘드로이친+ (사진)’가 누적 판매량 40만개를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

관첵 뮤코다당단백 콘드로이친+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받은 건강기능식품이다.

연골 조직 성분인 ‘뮤코다당(콘드로이친 황산)·단백’을 1200mg 함유한 것이 특징이다. 유기용매 등 화학 처리를 거치지 않고 자연유래 효소를 활용한 효소처리공법을 적용해 성분 흡수율과 안전성을 높였다.

/이청하 기자



## 셀트리온, ‘CT-P44’ EMA 임상 3상 돌입

〈다잘렉스 바이오시밀러〉

3상 통해 다잘렉스 유사성 입증  
항암제 포트폴리오 확대 구축

셀트리온이 미국, 한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다잘렉스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기 위한 임상에 돌입하게 됐다.

셀트리온은 지난 8월 29일(현지 시간) 유럽 의약품청(EMA)에서 ‘CT-P44’ 유럽 임상 3상 시험계획(파트2)을 승인받았다고 1일 공시했다. 지난 6월 파트2 심사를 신청하고 두 달여 만이다. 파트1 심사는 지난 4월 통과했다.

유럽은 임상시험계획 신청 및 승인 절차를 파트1(임상 디자인 및 연구방법에 관한 평가)과 파트2(임상 기관 및 실행에 관한 평가)로 나눈다. 두 단계

를 모두 거쳐야 임상시험을 추진이 가능하다.

CT-P44는 불응성 또는 재발성 다발성 골수종을 치료하기 위한 바이오시밀러 후보물질이다. 임상 3상을 통해 셀트리온은 CT-P44와 다잘렉스의 유효성, 안전성 등을 비교하고 유사성을 입증한다. 향후 임상기간 2년 동안 불응성 또는 재발성 다발성 골수 환자 486명에서 이중눈가림, 무작위배정, 활성 대조, 평행군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리지널 의약품인 다잘렉스는 오는 2029년 미국에서, 2031년에는 유럽에서 각각 물질특허가 만료된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은 글로벌 주요 국에서 후속 파이프라인 임상에 착수하는 등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셀트리온은 CT-P44임상 순항으로 신규 면역항암제를 추가함은 물론 항암제 포트폴리오를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CT-P44는 표적 항암제로, 다발성 골수종 세포의 표면에 존재하는 특정 단백질 표적에 암 세포의 성장을 막는 기전을 갖췄다. 임상 3상에 진입해 있는 또 다른 표적 항암제 후보물질은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CT-P51’이다. CT-P51은 면역세포 표면 단백질 PD-1을 억제하며 적응증은 비소세포폐암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나라셀라 “부산 APEC 만찬주 ‘몬테스 알파 엠’ 만나보세요”

만찬주 선정 20주년… 기획 세트 출시

국내 와인 유통업계 1호 상장사인 나라셀라가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담 만찬주 선정 20주년을 기념해 ‘몬테스 알파 엠(Montes Alpha M)’ 특별 기획 세트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세트는 2000 빈티지와 2020 빈티지 2종으로 구성돼, 20년의 시간을 잇는 상징적 의미를 담았다.

‘몬테스 알파 엠’은 칠레 최초의 프리미엄 와인 브랜드 ‘몬테스’를 대표하는 와인으로 보르도 블렌드(Bordeau x Blend) 방식으로 양조되어 깊이 있는 풍미와 우아한 밸런스로 국내 와인



‘몬테스 알파 엠’ 기획 세트

/나라셀라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얻고 있다. 진한 루비빛을 띠며 라즈베리, 자두, 딸기 등 붉은 과실향과 은은한 후추의 스파이스함이 조화를 이루고, 부드러운 탄닌과 균형 잡힌 구조감

/신원선 기자 tree6834@

## 아모레퍼시픽 창립 80주년 전시회 개최

아모레퍼시픽이 창립 80주년을 기념하며 ‘아모레퍼시픽 80년 | 1945-2025’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전시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경기 오산 아모레 뷰티 파크에 위치한 아모레퍼시픽 아카이브와 아모레퍼시픽 팩토리 두 공간에서 진행된다.

아카이브는 기업의 역사와 철학을, 팩토리는 산업적 기반과 생산 혁신을 소개한다. 두 전시는 서로 다른 관점을 통해 아모레퍼시픽의 도전 정신과 지속가능한 아름다움에 대한 비전을 함께 조명한다.

아카이브 전시는 ▲강한 상품과 브랜드 ▲디자인과 광고 ▲자연 원료 연구와 보존 ▲고객·사회와 소통 ▲해외 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용산 본사 건축 등 6개 주제로 꾸며졌다. 특히 지난 80년 동안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소명을 바탕으로 아모레퍼시픽이 이뤄낸 혁신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팩토리 전시는 아모레퍼시픽 생산 공장 변화상을 통해 K뷰티 기술력을 알린다. 지난 1958년 아시아 최초로 도입한 미세 제분기인 에어스폰을 비롯해 성형기, 충전기 등 과거 기계들부터 오늘날의 첨단 자동화 시설까지 관람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 신제품

## 애경산업 바이컬러 ‘툰 탄력’ 2종

애경산업은 퍼스널 뷰티케어 브랜드 ‘바이컬러’에서 주름개선 기능성 바디제품군 ‘툰 탄력 바디케어’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바디 로션, 롤러 크림 등 2종으로 구성됐다. 울퉁불퉁한 셀룰라이트를 관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바디 붓기 및 혈행에 도움을 주는 마그네슘을 함유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바쿠치올, 판테놀, 나이아신아마이드 등 보습 성분이 함께 처방됐다.

/이청하 기자

## 동아제약 모닝케어 위슬루션 젤리스트릭

동아제약은 숙취해소제 브랜드 모닝케어에서 ‘모닝케어 위슬루션 젤리스트릭’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음주로 인한 위 건강과 민을 덜어줄 기능성 표시 식품이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 점막 보호 기능성으로 개별 인정을 받은 원료 ‘인동덩굴꽃봉오리추출물(그린세라-F)’을 함유한다. 이 성분은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이 확인돼 음주 등으로 약해지기 쉬운 위벽을 보호해 준다.

막대형 젤리 제형으로 설게돼 간편하게 섭취가 가능하다.

/이청하 기자



# 세종대학교

세상 世 으뜸 宗



2025 QS 아시아 대학평가  
TOP 1%

2024 Leiden 세계대학평가  
국내 일반대학 1위

2025 Times 세계대학평가  
국내 7위

## 세종대학교 2026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모집전형

2025. 9. 9.(화) ~ 9. 12.(금)

학생부교과 : 지역균형

학생부종합 : 세종창의인재(면접형, 서류형), 기회균형, 사회기여 및 배려자,  
서해 5도, 특성화고교졸 재직자

논술우수자 : 인문계열, 자연계열, 자유전공학부

군계약학과 : [교과] 항공시스템공학(공군)

[종합] 사이버국방(육군), 국방AI융합시스템공학(해군),  
국방AI로봇융합공학(해병대)

실기우수자 : 회화과, 패션디자인학과, 음악과, 무용과, 영화예술학과

예체능특기자 : 체육학과



세종대학교





### 중진공, 'APEC 중소기업 혁신포럼'서 디지털 전환 논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5 APEC 중소기업 혁신포럼'을 열고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닷새간 이어질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첫 공식 일정으로 열렸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 전환 현황과 도전과제 ▲정책금융과 민간 협력을 통한 금융혁신 ▲디지털 금융의 발전과 중소기업 혁신 전략 ▲APEC 회원국 간 협력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중진공



### 유희스, 박기량 치어리더와 줄음운전 방지 캠페인

롯데정밀화학의 요소수 브랜드 유희스(EUXOX)가 지난 25일 모델 박기량 치어리더(사진)와 함께 경기·강원 지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에서 줄음운전 방지 캠페인을 진행했다. 1일 롯데정밀화학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장시간 운전에서 지친 트럭 운전자들에게 잠시의 쉼과 응원을 전하고, 줄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롯데정밀화학



### LG U+, 디지털고객경험지수 2년 연속 1위

LG유플러스가 한국표준협회(KSA) 주관 '2025년 디지털고객경험지수(DCXI)'에서 이동통신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첫 통신 부문 평가 이후 2년 연속 1위다. LG유플러스는 고객 편의 중심의 디지털 전략과 서비스 혁신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LG유플러스 전경태 디지털CX/성장담당(오른쪽)과 방옥재 디지털커머스개발Lab장(왼쪽)이 문동민 한국표준협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 롯데웰푸드, 이색 러닝대회 '2025 설레임런' 성료

롯데웰푸드는 지난 8월 31일 서울 마포구 평화의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린 이색 러닝대회 '2025 설레임런'이 약 3000여명의 참가자가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일 밝혔다. 2025 설레임런은 '열받는 러닝대회'를 컨셉트로 한 이색 스포츠 행사다. /롯데웰푸드



### 카카오창작재단, 158명 작가에 창작공간 지원

카카오창작재단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함께 158명 작가에게 창작 공간을 지원하며 건강한 IP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창작재단을 통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창작 공간 지원 사업'을 진행, 웹툰 작가 49개팀 총 158명에게 창작 환경을 제공했다고 1일 밝혔다. /카카오창작재단

## 현대차 정몽구 재단, 2025 기후기술 글로벌 확산 지원

### 비영리·필란트로피 중심 국제 협력 파트너십 발족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아시아 기후기술 스타트업 생태계 확장을 위한 국제 협력 모델을 공식 출범했다. 재단은 지난달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CMKF-GIH 기후기술 글로벌 파트너십 컨퍼런스'를 열고 글로벌인더스트리허브, RMI·Third Derivative와 함께 비영리·필란트로피 중심의 국제 협력 파트너십을 발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은 '기술 발굴·자원 연결·글로벌 협력'의 3단계 구조를 통해 기후기술의 사업화와 확산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기관은 스타트업의 기술 검증과 투자 유치, 수요처 연결 등을 지원할



2025 아시아 기후기술 글로벌 파트너십 컨퍼런스 패널토의 모습.

계획이다.

행사 1부에서는 '아시아 기후기술 스타트업 파트너십' 라운드테이블과 런칭 세레모니가 진행됐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 최재호 사무총장, 글로벌인더스트리허브 김효은 대표, RMI·Third Derivative 로이

토버트 총괄이 참석해 공동 메시지를 발표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그린 소사이어티' 프로그램을 통해 2030년까지 기후·자원·생태 분야 18개 과제에 180억원을 지원하고, 기후기술

혁신 기업 15개 이상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어진 2부에서는 '국내외 기후기술 협력과 스타트업 육성'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다. 감비아 환경·기후변화·천연자원부 삼부 킨데 선임담당관이 주제 강연자로 나서 아프리카의 기후기술 수요와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고, 패널토의에서는 스타트업 성장 과제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재단 관계자는 "정몽구 명예회장의 기업가 정신과 기후기술 혁신에 대한 신념을 반영한 '그린 소사이어티' 사업을 2023년 론칭해 진행하고 있다"며 "설립자의 철학을 계승해 기후기술에 대한 혁신과 도전이 글로벌로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삼성전기,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 '푸른코끼리 공모전' 시상식 3개 분야서 32개 작품 수상

삼성전기가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푸른코끼리 공모전'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삼성전기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6회 푸른코끼리'와 함께하는 학교·사이버폭력예방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수상자와 가족 학생 각계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푸른코끼리 사업은 ▲예방교육 ▲심리상담 ▲캠페인 ▲학술연구 ▲플랫폼 구축 등 5대 과제로 운영된다. 삼성전기가 주관하고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참여한다.

올해 공모전은 포스터·웹툰·에세이 3개 분야에서 총 32개 작품이 수



제6회 푸른코끼리 학교폭력·사이버폭력예방 공모전 푸코시상식에서 삼성전기 장덕현 사장이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장상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전기

상작으로 선정됐다. 초등생과 교사 등 다양한 참가자가 비폭력 메시지를 제시했으며 초등학교 6학년 정다연 양이 '지금 웃고 있니 누군가는 울고 있어' 포스터로 관운학원 이사장상을, 초5이주아 양이 '가벼운 터치 무거운 상처' 포스터로 삼성전기 대표이사상을 받았다. 이대일 교사는 관계 중심의 따뜻한 교육 경험을 담은 에세이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정희준 기자 nauta@

## 맥도날드, MAD STARS서 6개 부문 수상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

### '한국의 맛' 광고 캠페인 성과

맥도날드는 '한국의 맛(Taste of Korea)' 프로젝트의 광고 캠페인이 '2025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MAD STARS)'에서 6개 부문을 석권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는 2008년 출범해 올해로 18회를 맞은 국내 유일의 마케팅·광고·디지털콘텐츠 국제 행사다. 매년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미래 산업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맥도날드의 한국의 맛 프로젝트 광고 캠페인은 올해 해당 광고제에서 금상 1개, 은상 2개, 크리스탈상 3개 등 총 6개 부문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한국의 맛 프로젝트는 맥도날드가 2021년부터 진행해온 로컬 소



맥도날드는 '한국의 맛(Taste of Korea)' 프로젝트의 광고 캠페인이 '2025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MAD STARS)'에서 6개 부문을 석권했다고 밝혔다. /맥도날드

싱 프로젝트다. 국내산 고품질 식재료를 활용해 고객에게는 맛있는 메뉴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시작했다. 맥도날드는 매해 한국의 맛 광고 캠페인을 통해, 실제 해당 지역 주민이 참여한 영상 광고를 선보이며 진정성을 더해오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삼양라운드스퀘어, 푸드테크 공모전 진행

### '라운드스퀘어 프라이즈'에 중학부·고교부 32개팀 참여

삼양라운드스퀘어는 청소년 푸드테크 공모전 '라운드스퀘어 프라이즈(Roundsquare Prize)'의 첫 오프라인 행사인 예선 2차를 지난 달 30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라운드스퀘어 프라이즈'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푸드테크 공모전이다. '극한의 기후 환경에서 활용될 식품 및 푸드테크 아이디어'라는 주제 아래 아이디어의 주요 원리를 검증할 수 있는 실험이나 구현 방법을 기획하는 구성으로 진행됐다.

'라운드스퀘어 프라이즈'는 앞서 5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참가 신

청 및 연구기획서 점수를 받았으며, 중학부 33개 팀, 고교부 51개 팀 등 총 84개 팀, 208명이 참가 신청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 중 예선 1차 단계를 통과한 중학부 14개 팀, 고교부 18개 팀 등 32개 팀(총 82명)이 이날 행사에 참여했다.

예선 2차는 각 팀에서 제출한 연구기획서를 기반 삼아 3분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모든 발표가 끝난 뒤에는 참가자들을 위한 별도의 강연도 진행됐다. 먼저 오민환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교수는 'AI의 낙관주의적 사고'를 주제로 AI와 푸드테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과학 전문 인플루언서 수드래곤은 '때려서 고기굽기, 우주식품 생주기 등 음식에 대한 각 분야의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신원선 기자

## HDC현산, 노조와 현장 합동점검 시행

### '이문 아이파크 자이' 등 방문

HDC현대산업개발은 안전 강화화를 위해 노동조합과 함께 현장 합동 점검을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노사 합동 점검은 지난달 29일 '이문 아이파크 자이' 현장과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에서 진행됐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 현장 점검에는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이사와 노동조합 사무국장, 협력업체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 노사 합동 점검단은 현장의 각 동 휴막이 가시설 해체, 각 동 거꾸집·철근 및 갱폼 설치, 지하층 및 지상층 콘크리트 타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만나 현장의 고충을 듣고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도 전달했다. /전지원 기자 jjw13@

### 인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영성부원장 신희준 신부 △진료부원장 광승기 교수 △행정부원장 최예원 신부 △연구부원장 김명신 교수 △암병원장 이명아 교수 △혈액병원장 김유진 교수 △심뇌혈관병원장 천호종 교수 △대외협력부원장 양동원 교수

### 부음

▲박미영(전 건국대 강사)씨 남편상, 김태은(대한항공 과장)·시원(롯데손해보험 책임)씨 부친상 = 한겨레신문사 회장,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4일 오전 8시30분, 영결식(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 4일 오전 9시30분. 02-2227-7500



Cooperation 협동 • Collaboration 협력 • Connectedness 연결

함께 보면  
함께 가면넓게 보고  
멀리 간다소비자산업학과  
김하늘프랑스어문·문화학과 교수  
Cynthia Rollin소비자산업학과  
주예슬바이오신약의과학부  
손민경국어국문학과  
강소원

## 2026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수시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 2025. 9. 8.(월) 11:00 ~ 9. 11.(목) 18:00

입학상담 | 02-920-2000

홈페이지 | ipsi.sungshin.ac.kr

**성신여자대학교**  
SUNGSHIN WOMEN'S UNIVERSITY



# 염증을 부르는 맛있는 배신자



연 윤 열 의  
푸드톡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얼굴이 부어 보이거나 혹은 별다른 이유 없이 온몸이 빠근하고 피곤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면 여러분의 냉장고와 식탁이 ‘염증’이라는 불청객을 초대하고 있다고 한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염증이라고 하면 대부분 ‘상처가 빨갛게 붓는 것’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우리 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24시간 작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전쟁의 주인공은 바로 ‘만성염증’이라는 교활한 녀석이다. 염증이라는 녀석은 마치 집안에 불이 났는데, 불은 꺼지지 않고 연기만 계속 피어오르는 상황과 비슷하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몸 속에서는 계속해서 염증성 물질들이 돌아다니며 혈관, 관절, 뇌까지 슬금슬금 손상을 입히게 된다.

맛은 있지만 만성염증이라는 녀석에게 무기와 화력을 제공해 주는 교활한 두 얼굴의 식품을 알아보자. 달콤한 설탕은 우리 몸 안에서 마치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한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산화 스트레스

라는 녀석이 발떡 깨어난다. 이 녀석이 깨어나면 NF- $\kappa$ B라는 염증의 사령관이 “전군 출동”을 외치면 염증 물질들을 마구 생산하기 시작한다.

더 놀라운 사실은 AGEs(최종 당화산물)라는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다. 실제로 이 물질은 우리 몸을 빨리 늙게 만드는 가속노화의 주범 중 하나다.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라면, 피자, 햄버거 등 초가공식품들은 마치 ‘염증 제조기’나 다름 없다. 각종 첨가물과 방부제가 우리 장내 미생물의 평화로운 상태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다. 장벽이 약해지면서 장이 세는 ‘장 누수 증후군’이 생기고, 몸 안으로 독소가 스며들기 시작한다. 마치 주택의 벽에 구멍이 뚫려서 바퀴벌레가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

마가린, 쇼트닝이 들어간 바삭한 과자나 쫄깃한 식감의 빵, 기름에 튀긴 음식들은 우리 몸속에서 ‘아라키돈산’이라는 염증의 원료를 대량 생산한다. 프로스타글란딘 E2, 류코트리엔 등 이름도 복잡한 이런 염증유발 물질들이 “아프게 해줄게”하고 우리 몸 속을 떠돌아 다닌게 된다.

붉은색을 띄고 있는 소시지, 햄, 베이컨과 같은 적색육으로 만든 고도의 초가공식

품은 바쁜 현대인에게 아침 식탁의 단골 메뉴가 되었다. 하지만 이 녀석들 속에는 질산염이라는 식품첨가물이 들어 있다. 이 교활한 녀석은 우리 몸속에서 니트로소아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신한다. 게다가 헤모글로빈의 철분이 산화를 촉진시켜서 CRP(C-반응성 단백질)라는 염증지표를 쭉 올려버린다.

이렇게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들을 계속 섭취한다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마치 전시상황에 놓인 것처럼 돌변한다. 선천면역이라는 1차 방어군은 24시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적응면역이라는 특수부대는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해 혼란에 빠진다.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베리류, 폴리페놀이 함유된 채소들은 만성염증을 잡아주는 소방관 역할을 해준다.

독자 여러분의 식탁이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 올라 작은 화재를 일으키는 방화범의 소굴인지, 아니면 염증을 잡아주는 소방서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말처럼 오늘 저녁 식탁부터 실천해 보기를 권장한다.

/연윤열 식품기술사, (사)인천푸드테크협회 사무총장,  
(사)미래안보산업전략연구원 식량안보연구센터장

## 한국GM을 향한 색안경을 벗자



기 지 수 첩  
양 성 운  
(산업부)

“한국GM은 한국 시장 포기하고 철수하는 겁니까?” 지난해부터 한국GM이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거나 생존을 위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발표하면 언제나 따라붙는 꼬리표는 ‘철수’다.

한국GM이 지난 6월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 9곳과 부평 공장 유휴 자산·부지 매각을 추진한다는 발표를 하자 ‘한국GM 철수하나’ ‘한국GM 철수설 재점화’ 등의 여론이 형성됐다. 한국GM이 뭔가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내놓으면 웬지 모르게 자연스럽게 철수설로 연결되는 모양새다.

반면 배터리 업체나 전자 등 최근 부진에

빠진 국내 기업들이 희망퇴직이나 구조조정, 사업 축소, 생산량 조절에 나서면 생존을 위한 전략, 바닥 다지고 반등 준비하는 기업이라는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된다.

이같은 악순환의 연결 고리로 인해 한국GM은 국내 소비자들과의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언제든 철수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좋은 차를 판매해도 시장 반응은 싸늘해지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내수는 8121대, 수출은 24만1234대로 내수판매는 전체 판매량에서 5%도 안된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에서는 20만4345대의 판매량에 비교하면 초라할 정도다. 불과 10년 전 한국GM의 월 판매량 1만3000대를 기록했던 분위기는 찾아

볼 수 없다.

내수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위축되면서 결국 한국GM은 GM 본사의 구조조정에 맞춰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 판매량이 반쳐 준다면 이같은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한국에서의 자산이나 부지 매각도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한국GM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경우 직접 고용 인력과 협력업체를 포함해 약 15만명의 일자리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국가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GM이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변의 긍정적인 지원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물론 한국GM도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임은 분명하다. /ysw@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9월 2일 (음 7월 11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지혜가 작용수록 걱정만 는다. 48년생 타협과 양보로 차이를 좁혀라. 60년생 우리 개는 순해요 하면 사람이 잘못해서 다치는 것이란 말인가 개 목줄 할 것. 72년생 높은 구두신고 계단왕래 조심히. 84년생 열정이 빛나는 하루.



소

37년생 공작개서는 과일불금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 했다. 49년생 음식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식욕을 더 돋우기도. 61년생 차 바꾸면서 빗지지 말 것. 73년생 영업은 능동적으로. 85년생 좋은 품종으로 나쁜 폐단 줄이자.



호랑이

38년생 산이 깊으면 골짜기도 깊듯이 큰 이익 뒤에는 큰 손실도 따른다. 50년생 배우자의 고집으로 난감한 하루이다. 62년생 찬란한 태양이 나를 응원. 74년생 선순환적으로 진행되는 하루. 86년생 고정관념을 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라.



토끼

39년생 물이 가득 차면 넘쳐흐르기 마련. 51년생 직장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63년생 비빌 언덕이 절실히 필요하다. 75년생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서 바로 잡아야지 남에게 억지 부려야 되겠는가. 87년생 청소하니 마음이 편하다.



용

40년생 재물이 늘어날수록 겸손해 보라. 52년생 게으른 데서 부부 사이 멀어질까 걱정된다. 64년생 죽고 사는 것은 명수에 있고 부자와 귀하게 되는 것은 하늘에 있다 했다. 76년생 처음 먹은 일을 믿고 나가자. 88년생 자기 분수대로 사는 것.



뱀

41년생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해보자. 53년생 버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니 겸손. 65년생 빨강색이 행운을 가져오니 기분전환 된다. 77년생 불평은 운을 물러가게 하는 요소. 89년생 무조건 복달라고 비는 것이 기도가 아닐 것.



말

42년생 개가 사람을 물고 다치치 않게 적극적인 에티켓을 지키며 키울 것. 54년생 누구나 현실에서 방법을 찾으으며 사는 것. 66년생 어둠이 깊으니 별이 더 반짝인다. 78년생 이상의 유혹이 있는 날이니 주의. 90년생 자기변명에 상대는 피곤.



양

43년생 카페에서 모임을. 55년생 반려견이나 반려묘는 말 그대로 가족이니 때리지 마라. 67년생 툇단배 가뭇이 순조롭다. 79년생 부모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마이동풍馬耳東風을 후회. 91년생 오래 산다는 것이 축복이 돼야.



원숭이

44년생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니 일의 진전이 빠르다. 56년생 비난과 불평이 있어도 몸을 가다듬으면 가뭇가 열린다. 68년생 용돈을 아껴 써야. 80년생 지혜가 생기도록 고서古書를 읽어보자. 92년생 한밤중에 산에 올라서 야호를 외쳐본다.



닭

45년생 말은 쉬워도 주워 담을 수 없는데네. 57년생 세상에 나쁘기만 한 일은 없다. 69년생 성공은 나 자신이 좀 더 노력하기를 바란다. 81년생 역사는 승자의 기록에 좌우된다는 것은 개인사도 마찬가지. 93년생 짧은 시간이라도 운동을 해야.



개

46년생 단명팔자라도 선업을 쌓아 가면命을 늘리게 된다. 58년생 시간을 아껴서 기술력을 키우면 어떨지. 70년생 분수가 지나치면 있는 것도 잃게 되니. 82년생 번개가 치니 천둥소리도 곧 들린다. 94년생 디지털기기로 고충을 겪으니 불편.



돼지

47년생 미래의 예측은 단순히 길흉화복에만 초점을 맞춘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한다. 59년생 안락함에 처하면 위태로움도 동반되니. 71년생 허황된 꿈은 버려라. 83년생 이름을 떨칠 낭만이 있는 듯. 95년생 하루를 정리하며 기도를 해보시라.

## 김상회의四季

명당 로망(1)



우리 한국인들은 풍수에 관한한 애정이 깊다. 살아서도 별 잘 들고 물 잘 빠지는 터를 최고의 재택 지로 치듯 죽은 자들이 누울 한 평의 땅이 그 어디냐에 따라 자신들 영혼의 평안함은 물론 후손들의 번성과 번영이 직결되어 있다. 과학이 발달하여 우주선을 쏘아 다른 행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시절에도 이 믿음은 현재진행형이다. 일반인들도 이런 판에 왕가나 명문 세 가는 물론 재력이 있다는 집안들에 있어 명당에 대한 로망은 굳건한 것이다. 이에 대한 실증은 차고도 넘치지만, 역사적으로 비운의 인물이었던 사도세자는 불운한 죽음을 맞은 뒤 묘터도 아주 험한 곳이었다 한다. 아들이었던 정조가 나중에 왕위에 오른 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후 묘도 제대로 쓰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다가 마침내 이장을 결심하여 숙원을 푼다.

워낙 학문을 좋아했던 정조였던지라 스스로 풍수지리에 관한 책을 읽고 공부하여 지관 못지않은 풍수 지식을 쌓고 당대 최고의 지관들을 데리고 찾은 묘터가 수원 화성에 있는 용릉(隆陵)이다. 사도세자는 애초에 영조에게 미움을 받아 뒤주에 사사되고 난 후 무덤도 흉지라 할 수 있는 곳에 매장되었었는데, 사도세자의 무덤이 흉지라는 소문을 계속 듣고 지관 효심이 깊었던 정조는 그 무덤이 쓰인 산이었던 곳을 향해 절을 올리곤 했는데,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이 지금의 휘경동 배봉산(裨峰山)이 된 것이라고 한다. 정조가 왕위에 오른 뒤 처음 얻은 아들이 문효세자와 세자의 친모인 의빈 성씨가 연이어 죽자, 정조는 더는 사도세자의 이장을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여 실행에 옮겼다. 이장 후 이듬해에 정조는 다시 고대하던 왕자의 출생을 맞게 된다. 길지로의 이장이 빛을 본 것으로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덕이라 믿었으며, 한을 이렇게라도 풀어드린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 발행·편집인      | 이장규                             | 편집국장              | 윤휘중 |
|-------------|---------------------------------|-------------------|-----|
| 인쇄인         | 중앙일보(주)                         |                   |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721-9851, 9826 / 02)721-9861 |                   |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0206                       | 2002년5월28일 제5745호 |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50111                       | 2017년3월09일 제1849호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매슬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   |   |   |   |   |   |   |   |   |
|---|---|---|---|---|---|---|---|---|
| 8 | 5 | 4 |   | 6 |   | 2 | 1 | 3 |
| 3 |   |   |   | 9 |   |   |   | 6 |
| 6 |   |   | 1 |   |   |   |   | 2 |
|   |   |   |   |   |   | 3 |   |   |
| 7 | 9 |   |   |   |   |   | 6 | 5 |
|   |   | 1 |   |   |   |   |   |   |
| 9 |   |   |   |   | 5 |   |   | 7 |
| 5 |   |   |   | 3 |   |   |   | 9 |
| 1 | 3 | 8 |   | 7 |   | 5 | 2 | 4 |

|   |   |   |   |   |   |   |   |   |
|---|---|---|---|---|---|---|---|---|
| 7 |   | 2 |   | 8 | 3 |   |   | 1 |
|   | 9 |   |   |   | 1 | 5 | 7 |   |
|   | 3 |   |   |   |   |   |   | 5 |
| 5 | 2 |   |   | 4 |   |   |   |   |
| 6 |   |   | 3 | 5 | 2 |   |   | 4 |
|   |   |   |   | 1 |   |   | 2 | 7 |
| 3 |   |   |   |   |   |   | 5 |   |
|   | 5 | 8 | 7 |   |   |   | 1 |   |
| 2 |   |   | 9 | 7 |   | 8 |   | 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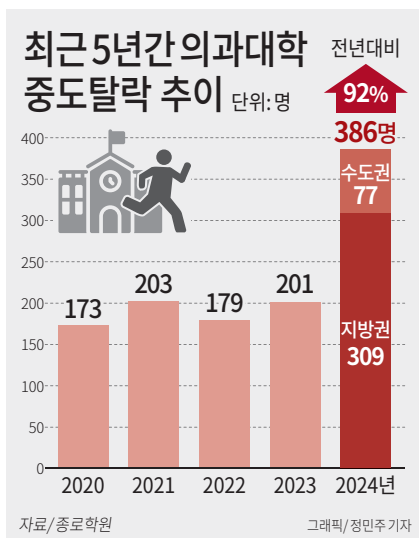
# 작년 의대생 중도탈락 92% 증가 지방 의대 떠나 수도권으로 갔다

의대정원 확대, 동맹휴학 여파에  
중도탈락 386명… 의대 간 이동  
지방권 309명, 호남권 가장 많아

지난해 전국 의대에서 중도탈락한 학생 수가 전년보다 92% 늘어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의대 모집정원 확대와 의대생 동맹휴학 사태가 맞물리며 의대 간 이동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를 분석한 결과, 2024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중도탈락자는 386명으로 전년도(201명)보다 185명 늘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2020년 173명 ▲2021년 203명 ▲2022년 179명 ▲2023년 201명에서 지난해 386명으로 급증해 2022년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학부 체제로 전환된 이후 사실상 최대치로 평가된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권 의대에서만 309명의 중도탈락자가 발생해 전년도(148명) 대비 108.8% 증가했다. 서울



권(9개교)과 경인권(3개교)에서도 각각 62명, 15명이 탈락하며 서울·경인권 합산 77명으로 전년 대비 45.3%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호남권 탈락자가 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권(61명) 부울경(60명) 강원(51명) 대구경북권(48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권은 전년(13명) 대비 269.2% 급증해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제주권 역시 4명에서 12명으로 200% 증가했다.

대학별로는 원광대가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대(20명) 연세대 미래캠퍼스(18명) 충남대(18명) 전북대(18명)가 뒤를 이었다. 상위 5개 대학 중 3곳이 호남권 대학으로 나타났다. 서울대(4명) 성균관대(4명) 연세대(3명) 가톨릭대(3명) 울산대(2명) 등 상위권 대학에서도 탈락자가 확인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지난해 의대 모집정원이 대폭 확대되고, 의대생 동맹휴학으로 복귀 및 재입학이 지연되면서 의대 간 이동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 부족응원 아니라 선호 전공이 개설된 대학으로의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임 대표는 또 “올해 의대 모집정원이 일부 축소됐지만 지난해 확대의 여파로 의대 간 이동과 탈락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김영권 전 부처장, 호서대에 평생기부 약정

36년 근무 대학에 발전기금 기부  
“오랜 헌신과 나눔, 후배들에 귀감”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에서 정년 퇴임한 김영권 전 대외협력부처장이 호서대에 대학발전기금을 평생 기부하기로 약정해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1일 호서대에 따르면, 김영권 전 부처장은 매달 일정 금액을 대학에 평생 기부하는 방식으로 발전기금을 약정했다.

김 전 부처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퇴임식에서 “호서대는 제 첫 직장이자 평생 직장이었고 저를 성장시켜준 곳”이라며 “감사한 마음을 이어가기 위해 평생기부를 약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처장은 1989년 입사 이후 36년간 호서대에 몸담으며 대학 홍보와 대외협력의 기반을 다졌다. 재직 기간 동안 언론과 지자체 교류를 확대하고 대학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 호서대가 중부권 거점 사립대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전국 대학 홍보 네트워크를 주도하며 2022년 한국대학홍보협의회 제25대 회장에 선출돼 200여 대학 홍보



김영권 호서대 전 대외협력부처장(가운데)이 36년간 재직한 호서대에 발전기금을 평생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호서대

관계자들과 함께 교육 경쟁력 강화, 고등교육 공공성 확대, 대학 간 정보 교류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국책사업 유치와 발전기금 모금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호서대가 반도체·AI·바이오헬스·디자인 등 미래 전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준모 부총장은 “김영권 전 부처장의 평생기부 약정은 대학 구성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오랜 헌신과 퇴임 이후의 나눔이 후배들에게 책임과 나눔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최교진 청문회, 정책 연속성vs도덕성 공방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교육복지·책임교육 강화 ‘높은 평가’  
논문표절, 음주운전 등 도덕적 논란도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일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다. 이번 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 없이 자료 검증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정책의 연속성과 후보자의 도덕성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 후보자는 지난달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각종 의혹으로 연일 검증대에 올랐다. 그는 과거 SNS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윤미향 전 의원 등을 옹호하거나 천안함 음모론을 공유하는 등 정치적 편향 시각이 담긴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탕탕절’, ‘병신년’ 등 표현은 막말 논란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으로까지 확산됐다.

또한 2006년 발표된 최 후보자의 석사 학위 논문에는 적절한 인용 없이 기사 내용을 그대로 활용한 부분이 발견돼 연구윤리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도덕성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후보자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교육감으로서 교육복지 확대와 책임교육 강화 등 정책 성과를 높게 평가하며 정책 연속성과 현장 경험을 장점으로 꼽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논문 표절과 SNS 발언, 음주운전 등 도덕적 결함을 문제 삼아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있다.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세종시교육청노동조합은 논평을 통해 “(최 후보자는) 2014년 7월 민선 2대 교육감으로 취임해 3선동안 세종교육을 이끌며 작지만 강한 세종교육청을 만들어 왔고, 모든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복지와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라며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이현진 기자

## 교육부,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센터 개소

각국 제도·수요 등 맞춤 전략 지원

교육부는 1일 서울 계동 국제한국어교육재단에서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한국어교육 지원센터는 해외

초·중·고 학교에서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각국 교육제도와 수요를 분석하고, 국가·권역별 맞춤형 보급 전략을 수립한다. 장기적으로는 현지 한국어교사 역량 강화를 지원해 한국어교육의 자생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999년 미국 현지 학교 한

국어반 개설 지원을 시작으로 전 세계 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규과목으로 확산해왔다. 그 결과, 2024년 기준 46개국 2526개 학교에서 약 22만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최근 10년 사이 규모가 두 배 이상 확대됐다.

교육부는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해외 한국어교육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 포천 한탄강서 58일간 가을꽃 축제 개최

오는 6일부터 11월 2일까지 가든페스타

포천 한탄강이 또 한 번 꽃으로 물든다. 2025년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가 오는 6일부터 11월 2일까지 한탄강 생태경관단지에서 열린다. 평일과 주말 내내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58일간 이어진다. 26만 제곱미터의 넓은 용암대지 위로 장미, 백합, 가우라, 천일홍 등 알록달록 가을꽃이 방문객을 반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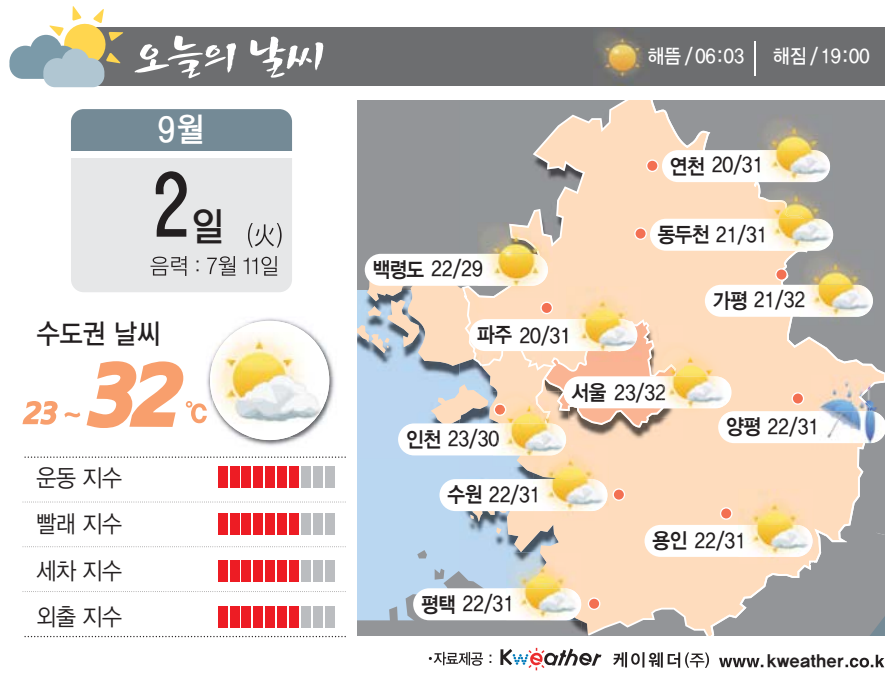
가을꽃 정원 외에도 양버들 가로수길, 지역 작가들이 꾸민 지역공동체 정원, 열대식물이 가득한 이국적인 공간인 열대정원 등 다양한 정원들은 한탄강 가든페스타의 매력을 한층 더한다. 기린과 코끼리 등 동물 모양의 대형 토피 어리도 설치되어 아이들은 물론 온 가족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국내 최장 410m 한탄강 Y형 출렁다

리도 빼놓을 수 없다. 다리 위에서는 협곡과 기암괴석은 물론 회양목으로 우거진 도롱뇽 포토존과 대규모 무궁화 정원의 축제장 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이외에도 ‘픽킹가든(Picking Garden)’과 야외 클래식 음악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주말마다 이어진다. 포천의 농특산물과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하는 리버마켓, 공예품 판매와 푸드트럭까지 풍성하게 마련했다.

10월 9일부터 12일, ‘2025 한탄강 세계드론제전’이 개최돼 세계드론라이트쇼(드론 6,000대 동시 비행), 드론 레이싱 및 축구, 드론 컨퍼런스, 세계음식문화축제 등 가든페스타와 연계되어 한탄강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또한, 10월 25일에는 ‘포천 반려동물 관광축제’를 개최해 반려견과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다.

/포천(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日증시, 알리바바 시 칩 충격에 급락…닛케이 지수 1.24% ↓  
▲아프간, 규모 6.0 지진으로 최소 610명 사망 1300명 부상  
/사진 뉴시스

▲“인니 대통령, 반정부 시위 격화에 방종 이어 방일도 취소”  
▲시진핑, SCO 국가수반이사회 연설 “회원국에 3900억원 무상 원조”

▲우크라 “러 상반기 공세 아무 성과 없어…러 후방 타격 계획”  
▲트럼프, 시카고에 추가 자원 투입 시사…일리노이 주지사 “도시 점령”





990원 빵 출시에  
베이커리 시장  
가격 논란  
L1



Life

현대차 정몽구재단  
아시아 기후기술  
글로벌 확산 지원  
L4



# 사회적 가치 93조... ESG 신념,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다

〈2018년부터 추적〉



SK그룹

경제적가치-사회적가치 동시 추구  
ESG 바탕으로 구체적인 성과 만들어  
지난해, 사회적가치 약 16.8조 창출

SK그룹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서 글로벌 최상위권을 이어가며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단순히 재무적 성과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함께 창출하는 전략이 실제 성과로 입증되면서, ESG 경영의 글로벌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개최된 SOVAC 2025에서 최태원 회장은 성과 기반 보상 구조와 협력적 해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기업의 역할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기업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직접 뛰어들어야 하고, 그 성과를 계량화해 공정하게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기업 이미지 제고 차원을 넘어, 기업 경쟁력 자체가 사회적 가치 창출과 맞물려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 ◆DBL 성과와 자회사별 ESG

SK그룹은 경제적가치(EV)와 사회적가치(SV)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더블바텀라인(DBL·Double Bottom Line) 경영 철학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SK그룹이 창출한 사회적가치는 약 16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그룹의 영업 성과만큼이나 의미 있는 수치로, 사회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기여를 수치화해 보여준 것이다. 첫 측정을 시작한 지난 2018년 이후 지금까지 누적된 사회적 가치 창출 규모는 무려 93조원에 이른다. 사회적 가치 창출이 단순한 구조를 넘어, 실질적으로 기업의 시장 경쟁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자회사 차원에서도 ESG 경영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ESG 경영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발표한 '2025년 MSCI ESG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한 것이다. 이 등급은 국내 에너지 기업 중에서도 유례가 드물고, 글로벌 주요 에너지 기업과 비교해도 최상위 수준으로 꼽힌다. SK이노베이션의 ESG 성과가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반도체 계열사인 SK하이닉스 역시 탄소 중립 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2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2023년에 열린 'SV 리더스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SOVAC 2025'가 25일~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1만여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 마무리됐다.



박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첫째줄 왼쪽에서 8번째)와 경영진 및 협력사 임직원들이 지난달 이천 본사에서 기술혁신기업 8기 협약식 및 7기 성과 공유회를 가졌다.

년 국내 대기업 최초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에 가입한 SK하이닉스는 2022년 산호세, 우시, 충칭 등 주요 해외 사업장에서 이미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달성했다. 더 나아가 공정가스배출량은 오는 2030년까지 4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2022년 기준으로만 약 1만2000톤(t)을 줄였다. AI 기반 설비 제어 시스템을 통해 약 142억원의 전력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도 보였으며, 협력사와 공동 개발한 '이너히터' 장비는 배관 전력 소비를 절반 이상 줄여 친환경성과 비용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

## ◆SOVAC을 통한 확산과 협력 플랫폼

SK그룹의 ESG 경영철학은 최태원 회장의 신념에서 비롯된다. 기업이 단순히 이익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이를 경영 성과에 반영해 사회 전체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철학이다. 이는 '사회적 가치가 곧 기업 가치'라는 관점으로, SK그룹 전반의 전략과 실행에 녹아 있다.

실제 실행 사례도 적지 않다. SK그룹은 지난 2020년 최 회장 주도 아래 8개 계열사가 RE100에 가입했다. SK주식회사를 비롯해 ▲SK텔레콤(SKT) ▲SK하이닉스 ▲SKC ▲SK실트론 ▲SK머티리얼즈 ▲SK

글로벌 시장서 ESG 성과 인정 받아  
주요 사업장 재생에너지 100% 달성  
2020년, 8개 계열사 'RE100' 가입

지속가능한 해법 위해 구조전환 나서  
사회적 가치 창출 선도기업 위상 강화

브로드밴드 ▲SK아이이티테크놀로지 등 그룹의 핵심 계열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는 국내 대기업 가운데 최초 사례로, 다른 기업들에 ESG 실천의 모델을 제시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난 8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SOVAC 2025는 SK그룹이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더욱 확산시키는 장이 됐다. 행사에는 1만여 명이 참석하고 180여 개 파트너가 참여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를 넓혔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원순환, 고령화, 장애인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SKT FLY AI X SOVAC Challenger' 경연이 신설돼, 청년 세대가 주도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는 계기를 마련했다.

행사 기간 진행된 기부 플랫폼 '카카오 같이가치' 프로그램에는 총 2만7000명이 참여했다. 아동 급식, 청소년 교육, 환경문

제 해결, 학교폭력 예방 등 다양한 사회적 의제에 대한 후원으로 모금액이 총 3000만 원에 달했다. 단순한 참여를 넘어, 사회적 가치 확산을 실질적 행동으로 연결시킨 사례다.

최태원 회장은 "복합적 사회 문제에 직면한 지금, 지속가능한 해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발상과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사회문제 해결에 성과를 내는 기업과 조직 혹은 개인이 더 많은 기회와 보상을 받는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문제 현황과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는 체계를 만들고, 성과 기반 보상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은 ESG 경영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제도적·구조적 혁신으로 이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결국 SK그룹은 ESG 최상위 평가, 사회적 가치 금액화 제도, 자회사별 실행 성과, 그리고 SOVAC을 통한 협력 플랫폼까지 다층적인 성과를 축적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 선도기업'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회공헌 활동을 넘어, 기업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의 핵심 축으로 사회적 가치를 내세우는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메트로 한줄뉴스



▲프로야구 롯데, 가나초콜릿 50주년 기념 특별 유니폼 출시  
▲정해영, 복귀 후 첫 세이브 상황에서 블론...KIA  
뒷문 어찌나 /사진 뉴시스

▲서울시체육회, 6일부터 서울-베이징 스포츠 친선교류대회 개최  
▲대한체육회, 밝은눈안과와 함께 국가대표 안과 검진·진료 제공

▲2025시즌 2차 K리그1 팬 프렌들리 클럽상, 팬 투표 시작  
▲'북중미월드컵 모의고사' 치르는 홍명보호...미국으로 출국